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7월 11일(음력 5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636 호

‘사찰 경내지 무단 사용’ 법적 대응

조계종 문화재사찰委, 정부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조계종이 사찰 동의 없이 경내지에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 · 설치 · 운영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찰 동의 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옛 관람료위원회)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이날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문화재관람료 시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들에게 개방,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다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인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은 불법이므로 무효다 △만일 사찰의 동의하에 전통사찰 경내지 내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 · 설치 · 운영할 경우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문화재보호나 자연보전 등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소유권 침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해 종교활동,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보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찰과 불교계는 현재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잘 보존 관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전승해야 한다는 큰 책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시민환경단체와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다.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강경수=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강경수를 둔 것은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각종 언론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정부와 조계종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1월 17일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단순히 매표소 위치조정 문제가 아닌,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중요성, 불교문화재 분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 복합적인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측과 조계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이하 제도개선협)’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도개선협은 실무소위원회를 두고 10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조계종, 시민환경단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실무소위에서 조계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관련 요청 사항을 제출했으나 정부측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또 6월 5일 열린 5차 실무소위에서 시민환경단체가 탈퇴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27일에는 정부측이 ‘국립공원 내 사찰매표소 단계별 이전 추진계획(안)’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정부, 조계종 요청 사항에 ‘부정적’=조계종이 4월 26일 열린 2차 실무소위에 제출한 요청 사항은 9가지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범위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전통사찰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귀속 △사찰 토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국립공원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범위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전통사찰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대해서만 수용 및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선 ‘수용불가’ 의견을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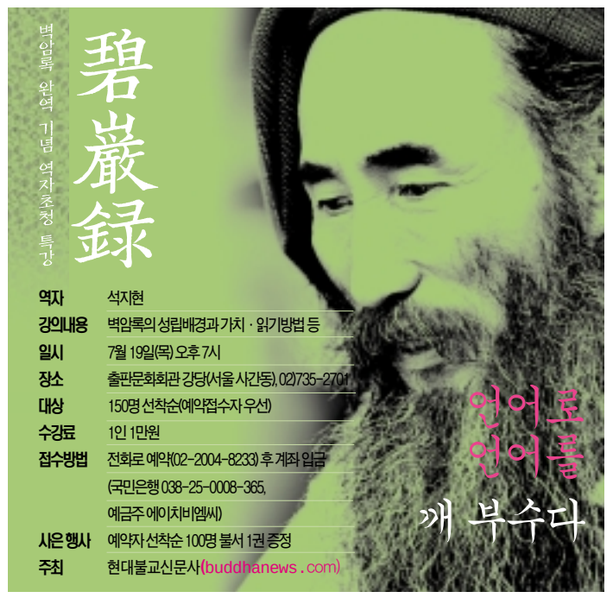
<2면에서 계속>



승가원 홍보대사 탤런트 이세은씨의 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불자탤런트 이세은씨가 7월 4일 승가원을 방문해 위촉패를 받고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세은씨는 “장애를 가졌지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씨를 어린이들이 활짝 웃으며 반기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깨달음과 금욕의 관계는?

고대 민족문화연구원·불교학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종교적 깨달음과 구원에 있어 ‘금욕’은 필요조건일까 충분조건일까?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흥규) 국제한국학센터(소장 조성택)와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8월 2~3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금욕과 깨달음(Celibacy and Enlightenment)’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민족문화연구원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와 시즈카 사사키(일본 하나조노대), 신학자 리샤 이셔우드(영국 윈체스터대) 등 해외 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조성택 교수는 “역사 · 철학 · 종교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금욕과 종교적 구원의 상관관계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I love Buddha / 부처님 법 나누기

용정운(www.zentoon.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763-2980
종로,서초,방배,송파,안산

<PR>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平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심화

<1면에 이어서>

이에 조계종은 6월 5일 열린 5차 실무소위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3단계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4개 사찰의 매표소를 단계별로 이전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하며,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민환경단체 문화재관람료 불복종운동 전개=조계종은 손실보상, 법제도개선 등 종단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측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이 매표소 위치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할 때 관련 지원 방안 및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 불편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종단에 14곳의 사찰 3단계 매표소 이전계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측 한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계획은 하나의 안일뿐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조계종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실무소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시민환경단체는 정부와 조계종을 싸잡아 비난하며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악연맹 등 5개 시민환경단체들은 5일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2007년 6월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돼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단계별로 매표소 앞에서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없이 입장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감정대립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과 정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감정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 물러나 대화로 풀 것”을 제안했다.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에 의해 문화재 보수유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는 준용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손옥균 팀장도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조계종에서 먼저 통행세 성격이 강한 매표소를 이전하면 보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사찰 토지 내 국립공원 시설 및 문화재 현황은?

국립공원 총면적 27억2614만 3000㎡ 중 사찰면적은 2억1600만 9960㎡로, 국립공원 토지 중 7.9%가 사찰소유다.

여기에 매표소 건물 22개, 탐방지원센터 20개, 화장실 80개, 야영장 8곳, 주차장 7곳, 탐방로 151.95km 등이 관광객 및 등산객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또 국보 17점, 보물 61점, 사적 및 명승 3점, 중요민속자료 7점, 유형문화재 83점, 문화재자료 30점, 기타기념물 13점 등 총 214점이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주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단체제 정비 제2도약 할 것”

원융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 ‘종도교육 평가회’ 법계고시 실시·가사 통일 등 발전 방안 제시



“법계고시 실시, 가사 및 의식 통일, 조직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원융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수원 용화정사 주지 · 사진)은 7월 5일 총무원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여명의 종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산 광명사에서 개최했던 ‘원융종 종도교육’ 평가회를 갖고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를 밝혔다. 스님은 “원융종이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며 “하지만 역사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소종단도 이제는 체계를 갖추고, 좌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법계고시를 정비해 올 8월에 합동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에 한해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마다 실시할 구족계는 출가 3년이상으로 해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한 뒤 매년 기수대로 배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불사를 단행해 가사를 통일하겠다”며 “9월초에 개최할 수륙재를 종단의 연례행사로 열고, 예불 천도재 등의 의식을 통일하기 위해 <합동법요집>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직강화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차원에서도 매월 1~2회 총무원 원장단 및 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조직을 세분화해 총무원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6개의 교구 종무원에서 400여개 등록사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달내로 종단 내 30%에 달하는 비구니들의 활동강화를 위해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스님은 “종단을 일정정도의 위치에 올리기 위해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하고, 그동안 군소종단이라는 취약점으로 못했던 상벌관계도 확실히 할 것”이라며 “종단의 방침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찰들은 종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사찰 창건주들의 경우 유발 비구 비구니로 신분을 격상시켜 활동을 보장해줄 방침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태고종 부탄왕국 문화교류 ‘맞손’

태고종과 부탄왕국이 6월 28일 부탄 수도 팀부시 리버 호텔에서 문화교류 조인식을 개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부탄왕국 징메와이 틴레이 내무부장관이 서명한 조인서에서 부탄왕국은 한국 불교문화 교류와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은 태고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태고종은 부탄왕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은 부탄왕국의 내무부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양국에 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국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태고종은 부탄왕국 내무부장관 초청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부탄왕국을 방문했다.

김원우 기자

“신 모 교수 채용 現총장·이사장과 무관”

영배 스님 기자 간담회 개최

동국대 신모 교수 가짜 박사학위 논란과 관련 이사장 영배 스님은 7월 2일 이사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前 이사 장윤 스님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를 호도하고 있다”며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영배 스님은 “2년전 어떤 이유든 간에 이사직을 맡고 있음에도 이사장과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욱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켜야 할 이사가 확인절차가 끝난 사안임에도 이제 와서 교수 채용까지 들먹이는 것은 사학을 어지럽히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영배 스님은 “신 모 교수는 2005년 9월에 채용됐으므로 현직 이사장과 총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공식적이고 적법한 채용 절차와 확인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배 스님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 당국이 확인 검토 절차를 밝혀 정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진수 동국대 부총장은 신 모 교수의 박사 학위 취득 관련 증명서라며 팩스 3장을 내보이면서 “동국대 측이 당시 신 모 교수를 채용할 때 예일대 측에 요청한 서류에는 분명히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총장은 “현대불교측에서 신 교수 논문과 버지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을 함께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므로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 7월 4일 내정된 신 교수는 5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사학위는 분명히 취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은 진실”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장윤 스님이 주장 하는데 사실 인가?

-논문은 2005년 썼다. 당시에는 성곡미술관서 일하면서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며 썼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세컨리더(자료조사요원)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조사해온 자료를 갖고 썼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1년 버지니아대 박사학위 논문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다.

-나는 베끼지 않았다. 그들이 자료 수집해 온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설사 내가 논문을 베꼈다고 치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동국대 교수직에 임용될 때 학위를 보고 뽑지 논문으로 채용기준을 정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학자로서 교수에 임용된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로서 특채로 뽑힌 것인데 내 논문을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한 장윤 스님이 갖고 있는 내 논문은 올 봄에 장윤 스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스님 아는 분한테 건넨 것이다. 내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면 내가 논문을 직접 줄 수 있었겠는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박사학위는 진짜 받은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박사학위는 진짜로 받았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진명 스님 신청 기각

진명 스님이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6월 27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령 및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교구종회 규칙으로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구종회의 규칙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7월 중 주지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주불자연합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한다는 것이 담당변호사의 입장”이라며 “어느 쪽 주장이 적법한 것인지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진각논문대상 당선작 4편 선정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6월 28일 제9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이종수씨의 ‘조선후기 정토사상 연구’, 윤희조씨의 ‘중론에서 언어의 문제’, 김세봉씨의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슈퍼-셀프 리더십에 관한 비교연구’, 이방배씨의 ‘수행차제에 있어서 예비수행단계의 비판적 정립’ 등 4편을 선정했다.

또 진각종교학 분야에 공모한 박혜승씨의 논문은 연구 장려과제로 채택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4편의 논문은 11월 중순경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새,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대한 불교 태상종에서 알려드립니다.

태상종의 모체인 태상가정에서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태상가정 산하 대한불교 태상종 효총사(대구)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종교와 기타 다른 방편을 통한 수행자라도 성숙한 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수행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태상가정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장엄의 세계인 불국토와 다르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지상 천국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모두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바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본 태상가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사랑과 진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께 태상가정에서 준비한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상가정에서는 준비한 책자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인간의 존재목적을 이야기 하고 본성을 회복한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신성과 심정일체를 이룬 부부는 어떠한 사랑을 나누는지, 신의 사랑을 상속받았을 때 경험하는 무수한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고 또한 한 개인을 바라보시는 신의 눈물을 이야기 합니다. 후반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음의 진리인 공의 세계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장에서는 성자가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정한 대자유함과 무애행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수행자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수행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백 설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합니다. 또한 의식의 성장단계를 10단계로 보고 많은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성장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가 가야할 목적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사를 이야기 하고 불국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책은 전체적으로 신의 사랑은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그 사랑 속에서 신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상하셨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수행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법회교재편찬 · 심성프로그램 개발 '시동'

조계종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활용 계획

수불 스님 · 성일 스님 기탁 성금…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도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법회 교재 편찬 및 보급(3000만원) △어린이법회 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4000만원) △어린이법회 개설 지원 및 포교자료 보급(3000만원) △청소년 심성계발프로그램 개발(3000만원) 사업에 총 1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포교원은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활용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기금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기탁한 것이다.

어린이법회 교재 편찬 및 보급 사업은 어린이용 교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다. 교재는 서울교대 불교학생회 동문들(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과서 집필)과 어린이법회 전문가들로 '어린이법회 교재편찬팀'을 구성해 기존 발간된 종단의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먼저 '저학년, 고학년용'을 편찬하고, 장기적으로 '학년별' 교재 편찬도 시도한다. 또 어린이법회 교재를 토대로 지도자용 교안 및 프로그램,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현장에 보급한다.

어린이법회 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 사업은 어린이법회 모범 사례를 BTN 프로그램으로 제작 · 보급하고, 확보된 자료를 어린이포교사이트에 게재해 많은 사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BTN과 '어린이포교실무팀'을 구성해 어린이법회 모범 사례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자료를 확보한다. BTN에서는 이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영한다.

어린이법회 개설지원팀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 팀 외 다년간 경험이 있는 어린이지도자를 팀장으로 지원팀을 결성해 어린이법회 개설을 원하는 사찰을 방문, 법회 개설을 지원한다.

청소년 심성계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은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청소년 심성계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심성계발프로그램 개발팀'을 결성하고 청소년프로그램 전문가와 불교수행 전문가로 연구 집필진을 구성한다. 프로그램 개발 후 자료집을 제작해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파라미타 각급 분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면서 "포교기금이 더 모이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저소득층 아이들에 희망 전해요

조계사 '해송공부방' 재건축 비용 지원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올해 2월 화재의 아픔을 겪은 해송공부방 복원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송공부방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에 소재했던 방과후 학교로, 창신동 주변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곳이다. 그러나 올해 2월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됐고, 재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해송공부방 재건축 총공사비 1억2650만원 중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금 전달식은 7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 기금은 경내에 비치했던 '자비의 기금 모금함'을 통해 모은 것과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은 것을 합한 것이다.

해송공부방은 지난 5월 29일 착공했으며, 올 8월 완공을 목표로 대지 22.8평, 건평 38평(3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금강산서 전국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7월 23~26일 금강산과 낙산사 일대에서 제10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연다.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리는 파라미타 캠프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 1300여명이 참가해 △금강산 탐방 △신계사 터에서 통일기원법회 △북녘 청소년 학용품 지원 △통일백일장 △음악놀이 페스티벌 △디카공모전 △낙산사 문화유산 탐방 △삼포해수욕장 해양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6월 28일 서울 성동구 다솜어린이집과 7월 1일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을 재 위탁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대상 수상자 초청 축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6일 불기 2551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용태영 변호사,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탤런트 강부자씨를 총무원으로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교법사단, 불교영상물 2천여편 정리

불교관련 영상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김남일)이 포교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교영상자료 가이드>는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한 각 공중파 방송국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영상물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 2000여 편을 테마별로 정리했다.

부처님 생애, 교리, 문화, 예술, 신행, 과학 등을 주제로 영상물 제목과 방영기록은 물론 간추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열람하면 어느 방송사에 어떤 영상물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임연태 기자**

4대 종교 남 · 북 종교인 대화 내금강서 7월 11~13일까지

4대 종단 성직자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이하 종협)'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금강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종교인의 역할 및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남 · 북 종교인 대화모임을 개최한다. 남측의 종교인협의회와 북측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종교인들의 역할과 실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는 분단 이후 처음이다. 참가단 규모는 불교 법안 스님 등 13명, 원불교 김성근 교무 등 12명, 가톨릭 전종훈 신부 등 3명, 개신교 이해학 목사 등 11명 등 총 39명이다. **김주일 기자**

산사체험 여름 수련회

태고종 보우승가회와 보우승가대학은 7월 27~29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4회 산사체험 여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예불, 108참회, 선암사에 주석했던 역대고승들의 오도과정과 수행일화 소개, 3보 1배 정진, 숲속명상, 물 바람, 새소리 등의 대자연의 법문듣기 체험, 조계산 장군봉 등반대회, 수계법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어른 5만원, 청소년 3만원이다. (02) 763-5213 **김원우 기자**

운암 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는 8월 1일 동국대 원흥관에서 '제1회 운암 김성숙 선생 항일운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열단 활동과 광주 코뮨에서의 김성숙(손염홍 · 국민대)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김성숙(김광재 · 국사편찬위원회) △중경 임시정부에서의 김성숙(한상도 · 건국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비구니 승단 복원 논의

티베트 비구니 승단의 복원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7월 18~2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비구니 율장과 계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티베트 율장 연구와 비구니 계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二部僧) 수계와 사분율'을 주제로 국내 비구니 승단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 ★ 뽑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눔의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8월 13일~10월 1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2단계 : 면접(8월 6일2~4시 법련사)
■ **수업료** : 200만원(면접 후 입금)
■ **특전** : 나눔의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발견

전북 임실 성미산성서 출토



경주 남산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 임실 성미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됐다.

전북문화재연구원(원장 최완규)은 7월 4일 임실 성미산성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사진)과 백제 오부명(五部名) 인장와 등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금동여래입상은 높이가 9.8cm로, 팔엽(八葉) 연화문의 좌대 위에 서 있으며 가슴 아래 부분에는 U자형의 주름을 늘어뜨린 형태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불상의 형태로 보아 8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호신불로 추정된다"며 "전북지역에 이 같은 호신불이 출토된 예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내부에서 출토된 청동여래입상(국보 123-4호)과 익산 사자암에서 출토된 청동약사여래입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주 삼릉계삼층석탑 제자리 확인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발굴 조사



원 안이 석탑 부재를 접합한 부분이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경주 남산 삼릉계삼층석탑의 제자리가 확인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세워진 석탑의 원래 위치가 삼릉계석불좌상 유적지라고 발표했다.

석불좌상 유적에서 발굴된 석탑부재가 삼릉계석탑의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塔身部)의 일부분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발굴된 석탑부재 중 기단부의 것은 길이 22cm, 두께 10cm의 삼각형으로, 상대 갑석의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부편은 2층 옥개석(屋蓋石) 아래의 우주(隅柱)에 해당되며 높이 16cm, 너비 18cm다.

삼릉계삼층석탑은 삼릉계곡에 무너진 상태로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삼릉계 6사지의 석탑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을 뿐 정확한 원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여수령 기자

범어사, 전통사찰보존법 세미나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은 6월 2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사찰 규제 법령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윤석환 교수(동서대 건축공학과)는 '건축물대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현황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기초 생활시설 및 위생시설, 화재를 대비하는 소방 도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과 서훈택 팀장은 "정부에서도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전통사찰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사찰 여름캠프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어학캠프·孝수련회·트레킹 등 프로그램 다채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찰 캠프가 마련된다.(현대불교 자료사진)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사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찰 여름 수련회 중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역시 '어학캠프'다. 해남 미황사와 대구 은적사는 한문학당을 마련했다.

올해는 영어 캠프도 많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강화 국제연등선원과 비로자나국제선원, 부산 홍법사, 포항 죽림사 등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사찰별 특성을 살린 캠프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화성 용주사는 효를 주제로 한 수련회를, 선무도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줄 화랑수련회를, 부안 내소사는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각각 개최한다.

이 밖에도 대구 은적사와 해남 대흥사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성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평창 월정사는 박물관 수련법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올 여름, 자녀에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찰 여름캠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여수령 기자

●사찰별 어린이·청소년캠프 프로그램

사찰명	프로그램	대상	날짜	전화
서울 길상사	여름수련회	중고등학생	7월 22~25일	02-3672-5645
서울 도선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	7월 20~22일	02-993-3161
서울 법장사	여름캠프	초등학생	7월 27~29일	02-971-0303
		중고등학생	8월 3~5일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캠프	초등학생	7월 말	02-6012-1731
고양 흥국사	여름불교학교	초등학생	7월 22~24일	02-381-7970
여주 신륵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	7월 29~31일	031-885-2505
화성 용주사	여름효행수련원	어린이	7월 26~28일	031-239-9391
		청소년	8월 8~11일	
강화 국제연등선원	청소년 영어캠프	초중고	7월 23~8월 16일	032-937-7033
강화 전등사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중고등학생	7월 30~8월	032-937-0125
평창 월정사	여름불교학교	6~13세	7월 21~23일	033-332-6664
	박물관 수련법회	초등학생	7월 27~29일	
공주 마곡사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초등학생	7월 27~29일	041-841-6226
		중고등학생	8월 3~5일	
서산 부석사	어린이 한문학당	초등학생	7월 말~8월 초	041-662-3824
예산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초등학생	7월 28~29	041-337-6565
보은 법주사	여름수련회	초등학생	7월 22~24일	043-543-3615
부산 홍법사	여름수련회	초등학생	7월 말~8월 초	051-508-0345
	놀토영어템플스테이	초등학생	7월 14~15일	
부산 범어사	여름불교학교	초등학생	7월 29~31일	051-508-3122
부산 여여선원	여름불교학교	초등학생	7월 28~29일	051-852-8679
부산 혜원정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	7월 28~30일	051-866-7771
부산 관음사	여름불교학교	중고등학생	7월 24~27일	051-294-9300
		어린이	7월 28~30일	
부산 미타선원	여름불교학교	초등학생	8월 4~5일	051-253-8687
대구 은적사	여름방학 한문학당	어린이	7월 26~8월 1일	053-653-1572
	숲속 여름학교		8월 2~4일	
영천 은해사	여름수련법회	중고등학생	7월 20~22일	054-335-3318
		초등학생	7월 28~30일	
경주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초중고	7월 15~9월 1일	054-744-1689
경주 기림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	7월 27~29일	054-744-1701
김천 직지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7월 27~29일	054-436-6084
합천 해인사	여름수련법회	중고등학생	8월 7~10일	055-934-3110
		초등학생	8월 14~16일	
양산 통도사	청소년수련회	중학생	8월 4~6일	055-382-7182
		고등학생	8월 8~10일	
양산 금강사	불무도수련회	초등학생	7월 22~8월 4일	055-386-2262
양산 통도사	여름수련회	초등학생	8월 4~6일	055-382-7182
해남 미황사	한문학당	초등학생	7월 29~8월 5일	061-533-3521
			8월 8~15일	
해남 대흥사	어린이 숲속마을	초등학생	7월 22~25일	061-535-5775
구례 화엄사	여름 불교학교	어린이	7월 22~25일	061-783-7600
순천 송광사	여름수련회	중고등학생	8월 5~7일	061-755-0107
		초등학생	8월 9~11일	
부안 내소사	트레킹템플스테이	초등학생	7월 14~8월 13일	063-583-3035
김제 금산사	여름 수련법회	초등학생	7월 27~29일	063-548-4441
남원 실상사	불교문화체험	초등학생	7월 말~8월 초	063-636-3031

"아차하면, 사고나요!"

어린이 캠프, 안전요원 배치 등 준비 철저히

지난해 사찰의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박모(10)군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법당으로 가는 길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힌 것이다. 또 다른 사찰 캠프에 참가한 김모(11)군 역시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미끄러져 이마를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방학이면 전국의 사찰에서 불교학교나 캠프가 개최되고 참가 학생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지침과 안전요원 등의 준비가 부족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단법인 동련 정일훈 팀장은 "사찰은 교육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벽, 계곡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철저한 교육과 응급처치를 위한 전문교사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도교사들은 캠프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 장소와 시간, 프로그램에 적절한 환경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여름캠프의 단골 프로그램인 물놀이는 '사고의 원천'이라 할 만큼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적절한 수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안내 표지판과 경고문을 설치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반복 교육해야 한다.

여름철에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에 대비해 두통약, 감기약, 해열제 등 간단한 약과 소독약, 붕대, 연고 등의 비상약품을 준비해 두는 것은 기본. 여름철 마다 발생하는 식중독, 구토, 설사 등을 대비해 간식과 음식의 상태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철저히 준비해도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린이 상해보험은 1인당 500~6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며, 캠프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하성미 기자

도난 탱화 반환訴 선암사 패소

선암사 도난 탱화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선암사측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6월 27일 전남 순천시 태고종림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불화(佛畵)를 반환받기 위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사유를 들어 지난 6월 2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선암사 주지 승조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1978년 도난신고를 한 서류가 선암사에 보존되어 있고 2006년 선암사에서 다시 신고한 도난물품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취득이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고종과 선암사는 선의취득조항에서 문화재는 예외로 하는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학술지 '불교평론' 논문賞 제정

불교계간학술지 <불교평론>은 매년 한 차례 공모를 통해 우수 논문을 시상하는 '불교평론 논문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월 3일 밝혔다.

논문 공모에 나이 제한(50세 이하)을 두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재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젊은 학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의 논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비학술적 논문도 응모 가능하다.

올해 10월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불교평론> 논문상 응모작은 9월 30일까지 이메일(budreview@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여수령 기자

부산 교육자 불자회 '푸루나' 출범

부산교육경영직불자회 '부산 푸루나'가 6월 30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명우 교육위원회의장, 진정순 푸루나 회장 및 각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창립총회는 9월 11일 오후 5시 부산 안국선원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부산 미타선원 가족법회 개최

부산 미타선원(선원장 하림)이 가족법회를 개설하고 7월 1일 첫 법회를 봉행했다. 하림 스님은 "가족법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평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가족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미타선원은 앞으로 매달 첫 주 일요일마다 야외법회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051)253-8687

하성미 기자

시멘트 법당

최고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수있어도 금(金)과은(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성형제작과정



■포작성형양생과정 ■부연성형양생과장 ■포작설치과정 ■서까래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시공된사찰



특징 저렴합니다/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트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 본 업체는 시멘트법당 제조 및 시공에 관한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 (10-72820호 외 다수)로서 타인이 무단 침해할 경우 특허법 제126조 내지 131조 규정에 의거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한국고건축공예

본사및전시관 : 02-494-4890

상 담 직 통 : 011-9228-6814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86-4대웅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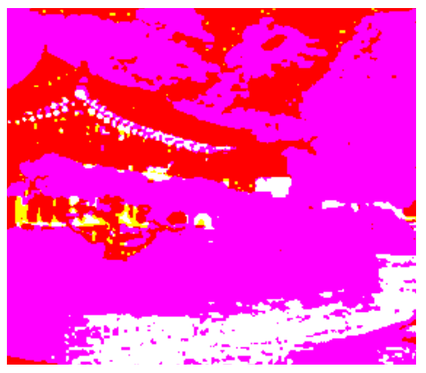
사하촌·절집 문화 교류하며 한 냇물로 흘러


운암리 당산나무.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⑲ 태화산 마곡사


일주문.


마곡사 경내 전경.

5월이면 절집 · 마을 사람 어울려 '신록축제'
서로 필요한 땅 환지…상생하는 지혜 돋보여
대동계는 이웃간 정 나누는 매개 역할 '톡톡'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은 늘 의문 속에 신비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 해도 인생처럼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길이다. 좀 헤매며 찾아온 길, 마곡사 초입에 들어서자 사찰을 안고 흐르는 청계수 소리가 턱까지 차오른 갈증을 걷어냈다. 봄 마곡이라는 말이 있지만 초록이 지천인 여름 마곡도 볼만하다. 한 여름으로 접어든 길목이라 아스팔트를 구워내는 햇볕의 열기가 대단했다. 나무그늘 아래 무거운 삶을 머리에 이고 낮잠에 빠진 아주머니 얼굴에서 평화를 읽어본다. 버섯, 콩, 산나물, 더덕,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잠에 빠진 주인 대신 사가라고 말을 붙인다. 이런 느긋함이 세상을 껴안고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것 아닐까.

태화산 자락은 <정감록>에 나오는 풍수지리상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한 곳으로 유마양수지간가활만인(維麻兩水之間可活萬人) 이라고 하여 유구천과 마곡천이 흐르는 곳으로 나라의 큰 환란이 있을 때 이곳으로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곳이다. 한국전쟁 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이곳에 터를 잡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풍문이 흘러 하나 둘 화전민들이 모여들고 거대한 촌락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명당의 기가 모아진 곳에 마곡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마곡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 충남지역 78개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명종 2년에 보조 국사가 중건했다. 마곡사 경내를 가로지르는 마곡천을 중심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남쪽 가람은 수행영역이고,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한 북쪽 가람은 교화영역으로 선교양종의 대본산 위치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 극락교를 건너면 마당 한가운데 라마교 풍의 축조 형식을 한 5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그 뒤로 후불벽화 백의수월관음도로 장식된 대광보전과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진 대웅보전이 다른 가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참된 나를 깨닫는 기도도량의 깊음을 보여준다.

아름답고 다정스런 산봉우리들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아랫마을 운암리 사람들은 정이 많다. 권재덕 개발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어 마곡사 개울에서 혼자 푸르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나그네를 당산나무 아래까지 나와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60대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었다. 마을 회관을 두고 손님을 집으로 안내하는 속 깊은 정은 몸에 배어 있는 일상인 듯했다.

권재덕 개발위원장은 공주문화원 산하에 예인촌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어 4년 동안 봉사를 하고 올해 자리를 넘겨주었단다. 8명으로 구성된 권재덕 풍장패를 이끌며 마을의 문화를 이어가는 상쇠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른들의 권유로 풍물을 만지게 되었는데,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기교를 부리는 예술을 보여주지만, 권재덕 풍장패는 자연스럽게 흥을 돋우어 모두 하나가 되게 합니다. 풍장패는 관객이 하나로 어울마당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사의 처음을 장식하지요. 마을은 음력 1월 14일이 되면 겨우내 손으로 비벼서 꼰 새끼줄을 가지고 나와 고리를 만들어 이 나무와 저 나무를 연결하여 돌을 매달아 두었다가 거두어 소쟁기 줄로 일 년 동안 씁니다. 오후에는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 풍장을 치면서 부엌, 장독대를 돌며 마당굿판을 벌이지요. 저녁에는 장승에 나무를 세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달집태우기를 합니다. 절집과 함께하는 문화는 괘불을 마을에 모셔다 걸고 스님들과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5월이면 절집과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신록축제를 합니다. 절집에서 초대를 해주면 탑돌이소리도 하고 김매기소리로 어울림 마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거에는 동네가 마곡사보다 번성했는데 지금은 마곡사가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오래전에 마곡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길도 마을사람들이 놓아 주었단다. "과거에는 마곡사 땅이 많아 사하촌 사람들이 사찰 땅에 집을 짓고 소작농으로 살았지만 서로 필요로 하는 땅을 환지하면서 사유지가 되었지요. 자장 율사도 반했다는 '춤고개'의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해탈문과 천왕문이 직선으로 이어지고 대광보전과 대웅전이 3층으로 보이는 경관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사찰에 내어 주고, 마을사람들이 지금의 상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절집과 갈등을 하지 않으려는 마을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보는 듯했다.

절집과 소통되는 문화이야기를 하다가 사하촌 사람들은 깊숙이 구겨 넣었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꺼내 놓았다. "어렸을 때 새우잡고 개구리 잡던 상원골계곡과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놀던 은바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상원골계곡이 관광지가 되면서 사찰에서 마을사람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출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 사하촌 사람들은 버스가 없던 시절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멀리에서 마곡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안방도 내어주고 아침밥까지 먹여 손님을 배웅 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권재덕 개발위원장은 조부모님이 마곡사 명부전을 짓는데 참여했다며 불심을 내 보였다. "부모님은 논, 밭 한 뙈기도 없는데 팔남매를 낳아 기르셨어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설움을 많이 받아 마을을 위해 보탬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사하촌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1973년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전화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문명을 끌어들였다. 마을에는 1940년경 대동계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차비를 쥐어 주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 준단다. 매년 12월 말 한해를 잘 살았다는 자축의미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마을의 문화로 계승되어 오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며 윷놀이를 즐긴다.

사하촌과 절집이 문화적 교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모든 제를 지낼 때 고기를 제물로 올리지 않는 불교식으로 지낸단다. 마을을 돌아 흐르는 시냇물이 사하촌과 마곡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산=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풍수지리사 김현수 옹

심법으로 집터 · 묏자리 봐줘
"세상 이치 주력 적용시켜야"

운암리에 특별하게 사는 사람 없느냐고 묻자 선뜻 박기준옹(88세)을 만나 보라고 했다. 심법(心法)으로 동네 사람들 묏자리도 봐주고 집터도 봐주고 이름도 지어주는 선생을 마곡사 윗마을에서 만났다. 긴 머리를 묶고 있는 선생의 인상은 초면인데도 비범인처럼 보였다. 사람의 심리도 꿰뚫어 보는지 내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납골당 이야기로 화두를 던졌다.

"납골당은 수토의 합이 들어 살은 물, 뼈는 흙이 되므로 수토합을 이루어 부모의 은덕을 갚은 것이 되지요. 경술년부터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인데 수장 목장 석장 토장 화장으로 변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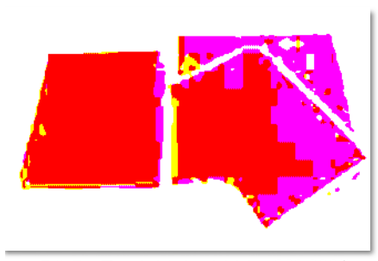
지금은 땅이 없으니 화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토장으로 모시게 되면 하늘과 땅의 은혜를 갚는 이치가 성립이 되지요. 이미 묘를 쓴 것을 화장 하는 것을 나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자손이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산소를 쉽게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묘를 써서 잘 되면 자기 재간으로 이룬 줄 알고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산소 때문에 잘 되어도 조상의 음덕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복인이 복일세'라는 말이지요. 선은 매일해도 남음이 없고 악은 상상할 수 없도록 남음이 있듯이 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즈음 결혼식을 대부분 주말로 정하는데 오합이 든 날로 택해야 합니다. 칠살이 드는 날을 택하면 반드시 해가 오기 때문이죠." 세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만 귀결 지으려 하지 말고 주력 원리도 적용시켜 보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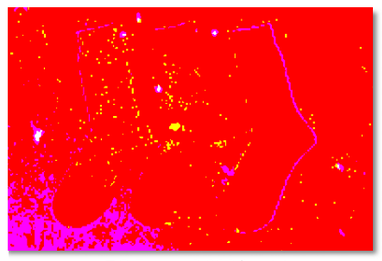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interview

김동조 지누리 대표

닥(한지)섬유란 무엇인가요?

웰빙 천연섬유소재로 황토보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모니아, 포름알데이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소취 및 항균기능이 뛰어난 21세기 유망 섬유신소재입니다.



닥(한지)섬유와 전통 한지는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한지는 주로 수록지나 공예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지의 심미적 효과가 중요하지만, 섬유용 한지의 경우 섬유용으로의 제작이 용이한 작업성과 제직 및 편직에 견딜수 있는 강도와 신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한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한지가 한지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계한지는 그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지사는(Korean paper yarn)는 무엇인가요?

면사 굵기 40수 이내로 내의를 짤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실입니다.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직관 편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량소재로서 성분성이 좋아 청량감과 제습기능, 소취기능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및 염색성, 내 세탁성 또한 우수합니다. 단 섬유이지만 모우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여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사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지는 제작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되지 못하고 쓰임새 또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사의 개발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섬유패션 소재를 비롯하여 홈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커튼, 카펫 등)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 www.jisarang.co.kr

일 주 문



스웨덴 언어학자 초청 강연회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7월 11일 오후 3시 스웨덴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02)997-6469



종교부문 환경대상 수상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교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불교 음식문화' 워크숍 개최

불교학연구회장 본각 스님은 7월 21~22일 부산 해운대구 해월정사에서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031)985-1627



만해 스님 열반 63주기 추모제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은 6월 29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묘지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인사

금강대학교는 7월 1일 2처 7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 기획관리처장 고수현 ▲교학처장 최종석 ▲불교/복지학부장 권탄준 ▲통상/행정학부장 김창남 ▲교양학부장 하응천 ▲원각도서관장 서문성 ▲산학협력단장 이운영 ▲불교문화연구소장 최기표 ▲사회복지연구소장 이원식 ▲통번역연구소장 장민호 ▲학생생활연구소장 고수현 ▲금강어학원장 최병학 ▲총무팀장 김광천 ▲기획협력팀장 강형규 ▲정보전산팀장 박혁하 ▲시설관리팀장 신원식 ▲학사관리팀장 박훈성 ▲교육지원팀장 장형사 ▲학생지원팀장 박찬기

"논문 質 향상·재정 지원 시급"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장 맡은 이평래 교수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개최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논문과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8년 5월 17~18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이평래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 사진). 이 교수는 결집대회의 전제조건으로 양질의 논문과 재정적 뒷받침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학술대회가 회원들의 회비와 학교의 지원으로 열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교학자의 층이 얇고 정부나 학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 교수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교학결집대회는 이틀간 국내외학자들의 논문 150여편이 발표되고 외국학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학술대회. 격년으로 열리는 결집대회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논문을 발굴함으로써 한국 불교학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데 개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료집발간과 운영자금, 체재비용 등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이 교수는 "결집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학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 학위 소지자는 지도교수 및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야 논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도 좀 더 양질의 논문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이 교수는 "결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불교학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02)2260-3140 http://www.skb.or.kr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2회 '불이상' 시상식 개최

재가여성불자단체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2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불이상 학술분야는 우제선 교수(동국대)가, 실천분야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이명희 불이회 부회장, 심사위원장 정병조 교수(동국대)와 권기종 교수(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고승대법회 입재식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7월 2일 설법전에서 '고승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4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이날 지장기도 및 입재식에서 지유 스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집중하고 번뇌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이라고 강조했다.

11명의 대덕 스님을 초청하는 고승대법회는 10월 11일 회향한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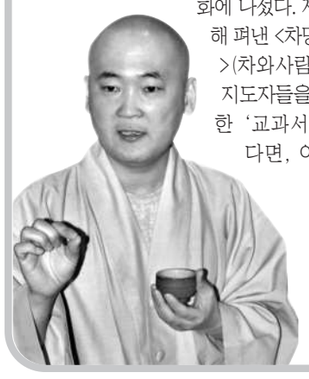
"茶명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장 스님, 입문서 출간·대학 강좌 개설 등 '대중화' 팔 걷어

지난 2005년, 서울 종로 한복판에 초의차명상원의 문을 연 지장 스님은 2년간 전국에 차 명상 붐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명상원에서 시작한 강좌가 지금은 대구와 광주 등에 개설됐고, 올해 여름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 명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일반인을 위한 차 명상 입문 에세이 <내 마음에 이르는 여행>(풀그림)을 펴낸 지장 스님이 차 명상 대중화에 나섰다. 지난해 펴낸 <차명상>(차와사람)이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서'였다면, 이번 책은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 차 명상의 세계에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꾸민 에세이다. 불교 전문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으면서 명상과 수행의 필요성, 의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매주 대구와 광주에서 강의하는 것은 물론, 직지사와 영평사 템플스테이에서도 차 명상을 지도함으로써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몇몇 대학에서 '차 명상' 교양강좌 개설 제의를 받고 개강을 준비중이다. 템플스테이가 대학 강좌로 개설된데 이어 차 명상도 대학생들의 심신수양의 방편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념처 수행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차 명상은 일상의 행위를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응용해 앞으로 음식 명상, 운동 명상, 운전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스님은 7월 17일 대구 우리차문화연합회 강당에서 '차 한 잔과 명상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차 명상 특강을 열 예정이다.(02)733-7209

여수령 기자

佛子 소프라노 박수진씨 모차르트 오페라 주연 맡아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찬불가를 통해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불자 성악가 소프라노 박수진(사진)씨가 7월 12일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중극장에서 모차르트의 작품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는 모차르트가 청소년기에 작곡한 것으로, 순박하고 순수한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수진씨는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오페라의 주인공을 맡게 돼 기쁘다"며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부산대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창원구룡사와 금강불교대학교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다. 현재 산사음악회 등에서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051)747-1567

하성미 기자

7대 종교 대표자 합동 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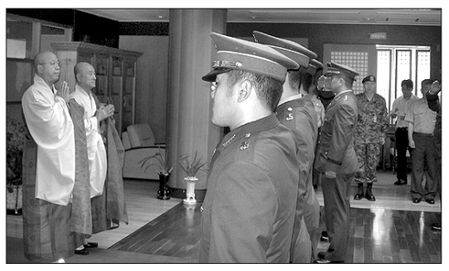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 소속 7대 종교 대표자들은 7월 2일 대구 계산 성당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 각 종교 성지 합동 순례를 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 원불교 이성택 교정원장, 성균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김동환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가했다.

'바른불교회' 서울 하림각서 창립총회



재가불자들의 신행 진작과 승단의 청정성 회복 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바른불교회'가 창립됐다. 바른불교회는 6월 30일 서울 하림각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양위찬 화엄종장학재단 이사를 선출했다. 바른불교회는 조만간 충남과 경북지역 등에 지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2007년 임관군승 신고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2007년 임관 군승 신고식을 봉행했다. 신임 군법사는 육군 9명, 공군 3명, 해군 6명 등 총 18명이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비와 사랑의 나눔 공동체' 음악회



'자비와 사랑의 나눔 공동체' (회장 권상무)는 6월 29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무료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인도 명상 성악가 허철영, 바리톤 박경훈, 소프라노 박수진, 혜광 스님 등이 특별출연했다. (051)863-0483

마 침 내 '진 정 한 나'를 찾 아 떠 난 다 !

웰빙 ♥ 웰다잉을 아우르는 명쾌한 이야기 48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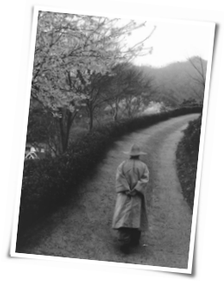
'자전거 여행'의 사진작가 이강빈의 풍경 사진이 함께 어울린 책

교보문고 비소설 북마스터 추천도서 !!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통해 전 세계 110여 나라의 지성인들 앞에서 차명상 시연을 보였던 '지장'의 첫 산문집.

EVENT <내 마음에 이르는 여행>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 명상 오디오 북'을 드립니다!



생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지극히 고요하고 엄격한 것!
바로 거기에, 나를 다스리는 '큰 스승이 있다!!

생활을 포기하고 명상에 전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명상화하면서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꿰뚫어 보며 산다면 삶과 수행 모두에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_본문 중에서

지금 전국 서점에서 이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전국 매장, 인터넷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리브로 외 기타)

전화 720-8801~2 | 팩스 720-8886 풀그림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4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1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 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감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6월 15일~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8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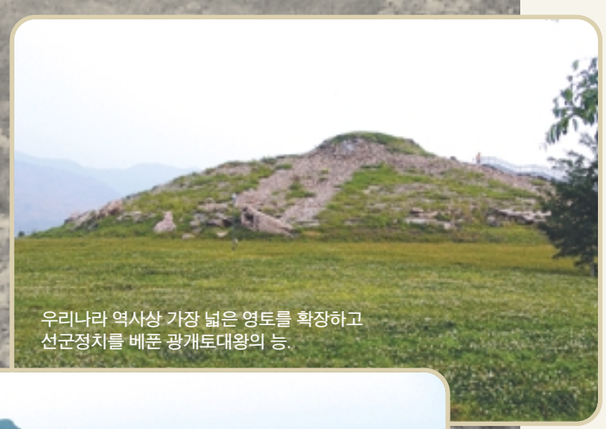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우리의 발걸음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 나가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선군정치를 베푼 광개토대왕의 능.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듣는 대불련 탐방단.



비사성 고산사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대불련 탐방단.

대불련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동행취재



백두산 천지에 오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고구려 탐방단.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도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역사임을 깨달았어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 이하 대불련)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를 주제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한 고구려역사유적탐방에 참가한 강윤미(항공대 2학년) 학생은 "우리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황 석남사 중심회 회장, 정기웅 건국대 교수, 추전 김화수 선생을 비롯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장, 홍지연 지도위원과 회원 50여명등 총 60여명의 탐방단은 고구려 역사 유적을 탐방을 통해

역사 새로 쓰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절실히 느껴
고구려 역사 왜곡 심각…광개토태왕비 촬영 통제
1300계단 지나 백두산 정상에 오르니 '만세' 절로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시도하는 동북공정이 역사전쟁임을 실감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미래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본격적인 답사일정이 시작된 26일. 첫 방문지인 압록강 하류의 고구려 박작성은 호산장성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멘트등으로 새로 복원되고 있는 박작성은 만리장성의 최동남단이라 표기돼 있었다. 여기에다 호산장성 박물관에는 만리장성의 동북단이 평양성까지 표기된 그림도 눈에 들어왔다. 또 고구려 성터중 유일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였던 박작성의 우물이 메워져 있었다. 그 우물에서 3.7m의 고구려시대 유일한 목선과 나무노가 발견됐으니 중국이 만리장성으로 주장하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오후에는 5시간을 달려 고구려 옛 수도인 국내성이 있었던 압록강 중류지점에 위치한 길림성의 집안에 도착했다. 집안으로 오는 길에는 소서노가 건넜다는 비류수가 아름다운 산기슭을 구비치며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고구려의 426년간 수도였던 집안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집안은 도시가 새로 만들어 지는 듯 건물공사가 한창이었다. 광개토태왕비 및 태황릉 주변은 모두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유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비석에는 유리각을 설치했다. 사진촬영도 엄격히 통제됐다.

개방된 4호 고분의 안에는 결로 현상으로 벽화가 하루에 1년씩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고, 장군총의 뒷부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일부 남아있던 국내성터는 돌을 화강암으로 한다거나 다듬거나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아무돌이나 모아 새롭게 성터를 쌓았을 뿐이다. 환도산성 앞의 수많은 고분군도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채 서서히 폐허로 변하고 있었다.

"훼손 되는 것이 더 가슴아파"



"책으로만 보았던 역사를 직접 느끼고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불련 고구려역사유적탐방단에 참가한 강윤미(항공대 2년 · 사진)양은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돼 보람 있었다"며 "고구려 유적지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왜곡되는 것 보다 무참히 훼손되는 것이 더 가슴 아팠다"고 밝혔다.

강 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대학생 불자인 만큼 고구려 역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사 전체를 바로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구려 유적들을 보다보니 "중국이 고구려를 지방의 호족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현재 고구려 유적지 복원과 일부분 감추고 없애려고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고구려역사유적탐방단 윤명철(동국대 교양교육원) 지도교수의 얘기에 수긍이 간다.

27일에는 아픈 역사와 답답한 현실을 뒤로 하고 한국인의 성지이며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 천지에 오르기 위해 새벽부터 바삐 서둘렀다.

해발 700m 지점에 도착하니 백두산 서파의 매표소 입구다. 여기에서 다시 천지를 오르 내리는 전용버스를 갈아탄다. 버스는 제 1지대인 밀림지역을 한창 달려, 2지대인 87년 태풍으로 고사목이 산재한 지역을 지나 3지대인 고산화원에 도착했다. 화원에는 작은 나무들과 야생화들이 산재했다. 4지대에는 백두산 화수목(자작나무) 군락이다. 화수목들은 하얀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5지대는 나무는 없고 오직 풀과 꽃들만 있다. 백두산의 자연을 둘러보며 올라가니 어느새 천지에 오르는 1300계단이 눈앞에 있다. 저곳만 지나면 천지인데 마음만 바쁠뿐 걸음은 속도가 나지 않는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니 순간 시원하다 못해 찬 바람이 몸에 엄습해온다. '만세' 오직 이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지는 파도 한점 없이 평온하다.

천지 전용버스는 내려오는 길에 금강대협곡을 들려 자연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새삼 느꼈다.

탐방단은 28일, 본계를 지나가며 세계에서 가장 긴 석회암 동굴이라는 본계수동을 배를 타고 둘러본 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후 3년까지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으로 향했다.

환안현 혼 강가 800m 높이에 사면은 150여m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오녀산성은 남북 100m, 동서 300m의 평지였다. 안에는 천지라 불리는 연못이 있고, 궁전터, 점장대, 병영터등의 유물이 남아 있다.

탐방단은 29일,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성 백암산 백암성을 답사했다. 끝이 안보이는 드넓은 분지 옥수수밭의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백암성은 한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다만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성주 손대음의 항복으로 함락된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북쪽과 동쪽 성만 남아 있으며, 북쪽 성벽의 높이는 5~6m이다. 북쪽 성벽에서 동쪽으로 1km 걸어가면, 35㎡의 내성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점장대가 있었다. 점장대는 남쪽 아래쪽 성벽은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 태자하(太子河)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천리장성의 맨 끝에 있는 비사성을 둘러보았다. 해발 663m의 대흑산에 있는 비사성은 전략요충지인 요동반도 남부해안에 상륙하는 수군을 저지했던 중요한 성이었다. 비사성에서 고구려 성이었다는 역사의 흔적은 찾기 힘들었다. 중국이 관광지로 급조해 건축한 새로운 성이 들어서 있었다. 성안에는 고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법당 앞에서 탐방단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산화해간 영령들을 생각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탐방일정을 회향했다.

중국/ 글 · 사진=김원우 기자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관련 문의 전화 : 011-9024-1445/011-785-0122/02-3494-0122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하십시오.

마음 성품 나는 것 아니거늘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하며
心性不生何須知見 -법융선사 심명

어찌해야 하겠는가?
호랑이는 사조를 뛰어 넘고
사조는 불자 위에 앉았다 -대원선사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
문의처 : 02)597-2460 / 02)522-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7> 종사가 화두를 챙기는 모습

깨달음을 얻은 종사가 참선을 하려는 사람에게 화두 드는 법을 가르칠 적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화두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켜서 이 마음을 모아 화두에 몰입하여 화두를 온전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는 '전제(全提)'이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하나로 뭉쳐 모든 분별이 떨어져서, 화두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파병(破病)'이다. 참선을 하려는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여 병통이 생길 때, 이 병통을 고쳐주기 위하여 임시로 그들의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알맞은 방편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학인을 지도할 수 있는 종사라고 할 수 있다. <선가귀감> 77장에서 말한다.

本分宗師 全提此句 如木人唱拍 紅爐點雪 亦如石火電光 學者 實不可擬議也. 故 古人知師恩曰 不重先師道德 只重先師不爲我說破.

본분 종사가 몰입하여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모습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과 같으며, 바람에 흩날리던 한 점 눈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용광로에 떨어져내려 금방 녹아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부싯돌이 부딪칠 때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빛과 같다. 이 자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헤아려 볼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 화상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道)와 덕(德)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저를 위하여 도에 대하여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종사는 선종의 종지를 체득하여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이다. 부처님 마음에서 훌륭한 방편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종사 스님은 후학들을 다룰 때 그 근기와 주변 상황에 맞추어 눈을 부릅뜨거나 머리를 끄덕이며 때로는 할!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기도 한다. 주장자로 선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기도 하며 멱살을 움켜잡고 꼼짝 못하도록 몰아붙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종사의 '본분사(本分事)'이니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 일어나는 임시방편이다.

화두와 하나 되어 몰입하는 것 만이 깨달음의 비결
선의 도리 글로만 알려 하면 살아 있는 道 죽일수도

본분 종사가 몰입하여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모습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 화두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킨 덕으로 화두에 마음이 모아져 화두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된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하나로 뭉쳐져 화두와 하나가 되어 온갖 시비와 분별이 떨어진 것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 치고 노래해도 알음알이가 없으므로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는 것과 같다.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사람의 감정이나 의식이 있을 리 없으므로 박수 치고 노래하는 것 또한 정식(情識)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서 '화두를 챙기는 나'가 사라지고 '챙길 화두'도 사라져 주객이 함께 사라질 때, 이때가 바로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자리이다. 화두와 하나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 모든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던 한 점 눈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용광로에 떨어져 내려 금방 녹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자리에서 중생의 시비와 분별로써 일어나는 온갖 번뇌가 눈을 깜짝 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 마치 부싯돌이 부딪칠 때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빛과 같다. 여기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헤아림도 용납하지를 않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 자리는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물맛을 알듯이 오직 스스로 체득하여 알 뿐이다.

그러므로 동산(807-869) 스님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저는 스승의 도(道)와 덕(德)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저를 위하여 도에 대하여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동산 스님의 이 말은 '법의 스승'이 되는 운암 선사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면서 한 말이다. 운암 선사가 임종 때 일러준 법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뒷날 강을 건너다 비로소 크게 깨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서주동산양개선사어록(瑞州洞山良价禪師語錄)을 어록을 보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산 스님이 운암 스님의 재를 지낼 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화상은 운암 스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분 밑에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재를 올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분을 등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상은 처음 남전 스님을 찾아 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암 스님한테 재를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와 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이 저를 위하여 법을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화상이 돌아가신 스승을 위하여 재를 올리는 것은 그 분의 공부를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인정 하지를 않습니까?" "만약 완전히 인정한다면 돌아가신 스승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不道不道 恐上紙墨.

더 말하지 말라, 더 말하지 말라. 살아 있는 도가 죽은 문자로 변질될까 두렵구나.

깨달음이란 그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여 그 자리로 몸소 들어가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화두 참구를 하는 수행자라면 오로지 화두에만 몰입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비결이다. 화두를 말로써 알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동산 스님은 운암 스님의 법을 이어 받은 제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암은 법에 대하여 설파하지를 않았다. 동산 스스로 선의 도리를 깨닫게 하였지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글로 해설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선종에서는 말과 지식으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을 아는 마음과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생명으로 한다. 이것을 모르고 말과 글로 깨달음을 설명하여 알려고 하면 살아 있는 도를 죽일 수도 있다. 선(禪)의 묘한 이 도리를 아는 자야말로 부처님의 세상을 아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箭穿江月影 須是射鵰人.

화살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을 꿰뚫으니
독수리를 잡아내는 대장부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법사십덕(法師十德)

<화엄경> 십지품 가운데 제9품을 보면 '선혜지보살들-보살의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법사십덕(法師十德)'을 갖추고 법을 항상 펼치는 데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사 말하는 법사의 열 가지 덕이 무엇일까.

첫째 선지법의(善知法義), 법의 뜻을 잘 통달하고 깨닫도록 해라. 둘째 능광선설(能廣宣說), 능히 지혜로 부처님 법을 널리 선포하라. 셋째 처중무외(處衆無畏), 대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과감하게 법을 설하라.

넷째 무단변재(無斷辯才), 걸림 없이 말을 잘해 일체법을 설함에 무량겁을 지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다섯째 교방편설(巧方便設),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슬기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하라. 여섯째 법수법행(法隨法行), 법을 잘 따르고 법을 따라서 행동하라. 일곱째 위의구족(威儀具足), 법 따라 사는 사람들은 행주좌와(行住坐臥) 4위의(威儀) 중에서 위(威)는 두려워하게 하고 의(儀)는 법답게 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여덟째 용맹정진(勇猛精進),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라. 아홉째 신심무권(身心無倦), 몸과 마음에 게으름을 없애라. 열째 성취인력(成就忍力), 어떤 경계라 하더라도 참 마음 무생법인을 성취하라.

부처님은 법을 따르는 불자들의 이 열 가지를 모두 갖추면 중생에게 큰 안락을 얻게 하는 법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9>

업설

세계(世界)란 말에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함께 들어 있다. '세(世)'는 변화하고 유전(流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세계관이다. 과거 · 현재 · 미래, 즉 숙세(宿世) · 현세(現世) · 내세(來世)의 삼세(三世)를 뜻한다. '계(界)'는 공간적인 세계관으로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삼계를 뜻한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란 각각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업(業)에 따라 치밀한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

업(業)이란 본래 의지적인 '작용'을 의미하며, 이의 대응어인 보(報)는 필연적 '반응'을 지칭한다. 이 의지적 작용과 필연적 반응이 각각 십이처를 이루는 육근과 육경의 특질이다. 인간의 의지적 작용[六根]이 대상[六境]에 가해지면 대상은 반드시 필연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작용이 인(因)이 되고, 필연적 반응이 결과[果]로 나타나는 '인과' 관계를 맺는다. 십이처를 이루는 육근과 육경 사이에 작용 · 반응의 필연성이 존재함을 관찰하고, 작용 · 반응의 필연성은 업 · 보의 인과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인과보(業因果報)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도출되는 것이다.

업인과보는 다시 착한 업인에는 착한 과보가 따르고, 나쁜 업인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르는 선인선과(善因善果) · 악인악과(惡因惡果)설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선 · 악의 판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업설에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선이고 깨달음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다.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세계란 우연히 존재하며 인간은 그러한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 본다. 인간은 우연한 세계 속에서 본래의 자기한테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의 주체요 책임의 주체로,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함으로써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운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자유 · 선택 · 책임을 강조한다.

불교, 인간의 의지 작용인 업인에 따른 과보 강조
현대상담의 자유 의지 선택 책임론과 일맥상통

현실요법 상담은 선택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란 반결정론적인 존재로, 생존 · 사랑 · 힘 · 자유 · 재미의 욕구 등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바람(Want)을 이루려는 내면적인 동기로 인해 행동한다고 본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 작용[업인]과 그에 따른 반응[과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업설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 책임론을 주장하는 현대 상담 이론은 일맥상통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혜승 스님은 1956년 해인사에서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망월사에서 3안거를 성만. 은해사 각성 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회암사, 고운사 주지 역임. 현재는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연화재단 이사장, 고운사 회주이다.

선지식을 찾아서

혜승

마음만 결정하면
모든 것 다 이룰수 있어
복 짓지 않고
받을 생각만 하니
괴롭다는 것

혜승 스님 (고운사 회주)

극락도 지옥도 자신의 '선택'

금빛 햇살이 내려앉은 소나무 숲은 두터운 적요로 가득하다. 금빛 햇살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훤칠한 삼층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삼층석탑 아래는 흰색과 분홍의 물봉숭아와 붉은 사루비아 꽃이 활짝 피어있어 고요한 절 안에 야단스럽지 않게 생기를 주고 있다. 말없는 말로 건네는 꽃들의 인사가 반갑기만 하다.

한 벽면을 대장경으로 가득 채운 혜승 스님의 방에 들어서자 수행자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스님은 오늘 집을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느냐고 묻는다. 이런 느닷없는 질문을 받아 본 일이 없기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스님은 불교는 시작도 기쁨, 과정도 기쁨, 결과도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원력을 세우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기쁨입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시키려고 힘든 일 마다않고 하잖아요. 그처럼 성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부처님이 너도 부처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부처님 말씀만 확실히 믿어도 원력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참말로 기쁨입니다. 깨달음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불 때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반드시 독송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독송해서는 안됩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부처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깨달으려고 하면 누구나 깨칠 수 있고, 이룰려고 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데 강인한 원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결정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마음을 내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성불하겠다는 소원은 불자들의 본원이기에 일생을 통해서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단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3분정도라도 염불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를 아침에 생각해 본다면 헛된 하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베풀어야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다.

"기술이든 지식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회향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사람들은 나눌 수 없다고 하면서 나누려 하지 않더군요. 좋은 말을 건네는 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판기 커피 한잔 사주는 것도 나누는 것 입니다. 서로가 나누려고 한다면 세상은 화기애애해질 것이며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극락세계라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나눈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팔만사천경을 통하여 극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는 보살의 마음을 비롯하여 아라한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지옥 같은 마음 등 참으로 많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옥을 선택할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극락을 선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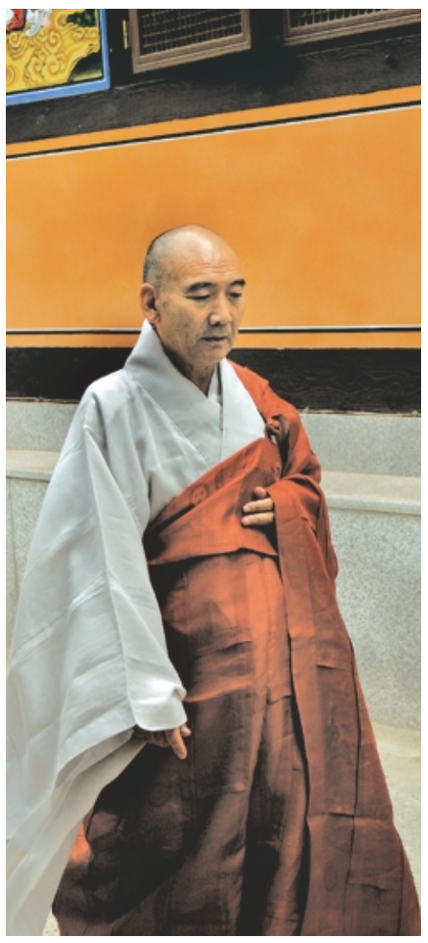
혜승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아 일할 때 사찰의 재정(財政)을 대중들에게 낱낱이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이 내는 보시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니 사람들은 혜승 스님을 믿고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자는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님의 확고한 철학이다. 혜승 스님은 주지가 10번이 바뀌어도 진행하던 사업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주지가 바뀌면 전에 소임을 맡았던 사람이 애써 해놓은 것을 뜯고 새로 하는 병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면 그때 불사한 사람의 성의는 무엇이 될 것이며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는 말씀을 하였다. 연화재단 이사장인 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손도 잡아주고 하다보니 정이 들어서 개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우리 절에 오시는 노인네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싶어 연화사를 지었어요.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증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노인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스님이 생각할 때는 사찰에서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법문을 청하는 사람에게 꼭 당부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를 내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니 날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욕심을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빼앗길 염려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익 되게 해주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 되게 해 주라고 하면 크게만 생각하는데 혜승 스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시든 나무가 있으면 물을 주고, 어딜 갈 때 앞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작은 일부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단다. 인연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뜻이다. 우리들이 괴로운 것은 복을 지어놓고서 복 받을 생각을 해야 행복한데, 복은 짓지 않고 받을 생각만 하니 괴롭다는 것이다.

복 짓는 일이 높은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혜승 스님은 말씀하지만 작은 선행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실천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혜승 스님의 가르침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즐겁고 산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다. 기쁨이 화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본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만공 스님(4)

만공, 일 없이 한가한 도인에게 왜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고?
진성, 한잔 더 잡수십시오

어느 날 만공(滿空; 1871~1946) 스님이 한가로이 앉아있을 때, 진성 시자가 차(茶)를 달여 가지고 왔다.

스님이 말했다.

"아무 일도 않고 한가로이 앉아있는 내게(我今不勞而閑坐), 왜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고?"시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노스님! 한 잔 더 잡수십시오" 하였다.

스님이 "허! 허?" 하고 웃었다. 이 문답은 유명한 조주 선사의 '끽다거(喫茶去: 차 드세요)' 공안의 한국판이라 할만하다. <조주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등장한다. 한 수좌가 절에 도착하자, 조주 선사가 물었다.

"여기에 처음 왔는가, 아니면 온 적이 있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차나 마시게."

조주 스님이 또 다른 수좌에게 같은 질문을 하니, 그가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조주 선사는 또 "차나 들게" 라고 하였다.

뒤에 원주(院主) 스님이 의심이 나서 조주 스님께 물었다.

"왜 온 적이 있다 해도 차를 마시라 하고, 온 적이 없다 해도 차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이처럼 조주 선사는 세 명의 스님에게 똑같이 "차나 들게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선사가 상대적인 분별의 식을 끊은 깨달음의 절대경지에서, 이리 저리 찾고 구하는 치구심(馳驅心)을 내려놓도록 이끄는 법문이다.

이 절, 저 절 찾아다니며 불법(佛法)이 무엇이고, 선(禪)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 헤매는 망상과 집착을 맑은 찻물로 씻는 시원한 화두인 것이다.

만공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끽다거' 공안을 화제(話題)로 제자의 기량을 시험하자, 진성 시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잔 더 잡수십시오"라고 응대한다.

'끽다거' 화두에 대해 요리조리 알음알이를 내어 대답하는 순간, 한 잔의 차는 어느 순간 독주(毒酒)가 되고 만다. 물론 조주 스님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흉내 낸다면 더욱 어긋나고 만다. 찻자리에서 한 잔의 차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음 없이 차를 올리고 받는 무심(無心)의 거래(去來)가 아니고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응대가 즉각적으로(생각의 개입 없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끽다거' 화두로 제자 기량 시험
주고 받음이 없는 '無心'의 거래

이 문답에는 '끽다거' 공안과 함께 '일없이 한가한 도인(無事閑道人)'의 경지가 어떤 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숨어있다. 만공 스님은 스스로 '일도 없이 한가로이 앉아있는(不勞而閑坐)' 무사인(無事人)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행여나 말 따라 가서 '빈둥빈둥 노는 노인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임제 선사가,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바로 무사(無事)"라고 했듯이, '밖을 향해 구하는 마음(치구심)'이 없는 것을 '무사'라고 한다.

'무사'는 적정의 경지이며 본래 진실한 자기(眞己)로 돌아가서 평안한 마음상태인 것이다. 사실, '치구심'을 없애는 것이 부처(본래 순수한 참 자기)를 자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무사(無事)가 바로 귀인이다. 밖으로 구하지 말라. 다만 조작하지만 말라"(임제록)고 했던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최후의 갈망'마저 쉬는 것이 참된 수행이 아닐까.

김성우 객원기자

'다라니 독송' 울림 선원 가득히…

일산 덕양선원, 천수대비주 10만독 성취 기념법회

티베트에서 스님으로부터 신도들까지 염송하는 진언(眞言:다라니)은 단연 '옴마니반메훔'이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묘장구대다라니(천수대비주=대비주=천수다라니=대다라니)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조석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의 핵심 진언인 천수대비주를 외우지 않는 사찰은 거의 없다. 하지만, 천수대비주를 중심으로 용맹정진하고 그 수행의 공덕을 사부대중이 함께 누리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백련암을 중심으로 능엄주 수행도량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산 덕양선원(선원장 법상)이 천수대비주 전문수행도량으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 스님이 자신의 수행담을 소개하며 다라니 정진을 격려했다.

7월 1일, 마침 덕양선원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만독 성취 기념법회'가 열렸다. 3백여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78만독을 성취한 원명화(63 · 서울 월곡동) 보살을 비롯 대도화, 자광명, 여진, 지심행, 선정화, 여경, 수정심, 박성준, 본자행 불자 등 10명은 감격 어린 표정으로 그간의 구도여정을 돌아보고 쉼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혜연 황해상(47 · 육군 대령) 거사는 불교계 최초로 419자로 된 대다라니 글자 하나하나에 6바라밀행을 발원하는 시를 붙여 '신묘장구대다라니 행시(行詩)'를 발표했다.

'나모라다나다라'에서 '나는 이제껏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가?'로 시작해, '사바하'의 '하하하 허허허 호젓하게 웃는 날까지'에 이르는 16쪽에 달하는 행시는 진언수행자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을 향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날 법회에서 법문을 한 법현 스님(열린선원 원장)은 "주력 수행의 결과는 정확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하며, 구하는 마음이 없이 무위법(無爲法)으로 염송해야 성취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태고보우 스님은 염불하는 주인공을 찾으라고 했으며, 신라출신의 무상 선사는 인성염불(引聲念佛:길고 느리게 '나무아미타불'을 창(唱)하며 염(念)하는 염불법)로 염불선을 가르쳤다"면서 대다라니 수행을 통해 참 나를 깨달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 스님(대성사 주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백내장에 걸려 실명했다가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통해 광명을 되찾은 당신의 수행담을 소개하면서, "다라니가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천수대비주를 외우는고? 하고 의문을 품으면 마음부처가 드러난다"며 정진을 격려했다.

덕양선원은 올해 11주년을 맞았지만, 신도들이 공식적인 정진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작한 100일 기도 때였다. 이때부터 1000일 기도를 새로 정하고, 그 과정에 다라니 100일 기도를 6차례나 진행했다. 100일 기도 중에는 7~10일간 하루에 1000독을 하는 가행정진을 수없이 했고, 매주 금요일은 어김없이 철야정진을 했다. 이런 용맹정진이 이어지면서 신도들은 적게는 10만독에서부터 30~40만독, 78만독에 이르기까지 대다라니 정근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도들은 <천수경>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법보시하는 등 수행과 생활 양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마음이 맑고 밝아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진 신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으며, 수행자 자신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졌다. 남모르는 가피를 입어 질병이 낫거나, 고난에서 벗어난 일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공주교도소나 군법당을 후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신도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참된 수행과 보살행을 늘 실천하게 된 점이다. 대다라니 16만독을 성취한 지심행(57 · 고양시 행신동) 보살은 "다라니 수행을 하면서 분별심이 적어지고 늘 긍정적이 되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생활이 저절로 행복해졌다"면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어서 참선과 둘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비주 수행도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덕양선원에는 날마다 다라니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 대다라니 1000편 독송 철야정진에는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동참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대비주 수행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불자들은 선원장 법상 스님의 자상한 개인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031)907-7172

인·터·뷰 - 법상 스님

천수대비주 수행 과정 통해 本性 잠재력 일깨울 수 있어



"대비주를 수행하면 방하착(放下着: 내려놓기)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깊이 집중하여 삼매에 들어가면 안팎이 공(空)한 가운데 신묘한 본래 자리가 바로 드러납니다."

참선, 위빠사나, 아봐타 등을 두루 닦은 덕양선원 선원장 법상 스님(사진)은 "수행을 통해 하나를 통달하면 만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실천수행이 부족한 한국 불교의 풍토에서 한 가지 수행방편을 우직하게 닦아서 직접 삼매를 체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참이 없는 공부는 마른 지혜만 키우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대비주와 인연이 닿은 것은 지난 94년, 서울 천중사에서 대비주 108편씩 100일기도를 하면서 기도 동참자들이 함께 가피를 체험하면서 부터다. 99년 참선 중에 5온(蘊)이 화합한 '나'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아공(我空)'을 체험한 스님은 2004년부터 하루 5시간 40분 꼬박 목탁을 치며 용맹정진해, 대비주 수행의 묘미를 터득했다. 스님은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대비주 수행을 통해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우자"고 말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축서사 철야 참선법화**=봉화 축서사는 7월 21일(매월 셋째 토)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선원장 무여 스님이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직접 법문하며, 좌선 실수(實修)를 지도 · 점검한다. (054)672-7579

●**정토선 염불 철야정진**=음성 용운사는 7월 14, 28일 주지 선용 스님의 지도로 정토선(淨土禪) 염불 철야정진을 연다.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은 자율철야정진. (043)878-3366

●**1주일 철야정진**=보림회는 7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8월 1일(수) 오전 7시까지 서울 보림사에서 1주일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육성 법문과 선어록을 교재로 보림사 회주 묵산 스님이 좌선을 지도한다. (017)332-4096

●**금강경 및 참선법화**=김천 인적사는 7월 28일(매월 넷째 토)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연다. (054)431-1192

화제의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金나노중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운명이 뭔데 내 인생 망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⑱ 사주팔자 바꾸기

대학 못 갈 팔자라고?

외동딸인 M양은 큰 어려움 없이 응석부리며 자랐다. 성적은 중간정도였다.

그런데 고교 2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이걸 어찌하면 좋으니. 너 나하고 절에 좀 가자"며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해서 앞으로 진로가 어떨지 물어보러 갔는데" 사주 잘 본다는 사람 말이, "잘못 타고 났구먼. 힘들겠어. 대학은 포기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 기생팔자야"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믿기 어려워 유명하다는 세 군데를 더 갔으나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M양은 귀를 의심했다.

"뭐?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기생?"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성적은 중간 이상이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절에 다니며 스님이 운명 같은 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은 스님은 "부처님법을 모르면 사주팔자에 끌려 다니겠지만 부처님법 앞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다.

"스님, 전 차라리 죽어버릴래요, 대학도 못가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하면서 울었다. "원래 사주 같은 건 고정된 게 아니다. 그걸 알고 마음을 바꾸어 살면 미래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 운명이 있다고 하자. 어디에 있나?" "글쎄, 제 마음에 있겠지요." "그럼 바꿔! 잘못 썼으면 바꾸어야 될 것 아냐." "어떻게 바꿔요!" "내 운명이니까 내가 바꾸지 그럼 누가 바꾸나?"

스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했다. 가슴 속에 백지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했다. 거기에 싫은 내용들이 적혀있다. 다시 써야 한다.

"난 공부한다. 꼭 대학에 간다!" " 난 공부를 좋아한다. 공부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모습을 마음에 다시 입력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위하는 마음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학 못 가고 '기생 팔자' 타고난 딸
스님 도움 받아 마음입력 변경 노력
타고난 사주 바꾸고 희망대학 진학

운명 바꾸기 작전

성적이 중간정도였던 M양은 그 때부터 오기가 났다. 오직 마음의 화면을 생각하고 거기에 글씨도 쓰고 모습도 그렸다. "내가 살려면 바꿔야지"하고 이를 악물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라고 해서 우선 부모님부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별로 부모님 생각을 못하였었다.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사실 M양은 공주병 걸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단점을 잡아 툴툴거리던 습관을 조금씩 고쳐갔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던지 포기하고 싶었다.

스님께 가서 "스님, 안하던 마음을 내려니 너무 안 돼요.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은 무릎을 치시며 "바로 그거야. 딴 사람이 돼야 운명을 바꾸지, 그럼 노력도 없이 어떻게 바꾸나? 내 팔자가 있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면 될 것 아닌가. 사람이 바뀌니 팔자도 바뀌는 것 아닌가."

새 물로 바꾸어 써라

M양은 "사실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

고3생활은 마음 입력 바꾸기와 따뜻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고 한다. 성적도 꾸준히 올라갔다. 현재 가고 싶던 여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주팔자라고요? 그런 거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M양은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말한다.

스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마음의 원리를 몰랐다면 그 때 좌절하여 학교생활이 불안하고 지옥 같았을 것 같다고 한다.

"제가 사실 정말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팔자가 안 바뀔 수 없었을 걸요?"하며 미소 짓는 얼굴이 따스함으로 가득하다. 우주에 고정된 것은 없다.

"구정물이 나오면 새물로 바꾸어 써라" 는 말씀처럼 마음의 부정적 입력을 긍정적인 새 입력으로 바꾸어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산행게시판

● **해남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가 매달 7박8일간 진행하는 '참 나를 찾아가는 7박8일간의 출가수행-2007 참사람의 향기'가 7월에는 21~28일 열린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을 통해 출가수행 체험을 할 수 있다. (061)533-3521

● **부산 범어사 고승대법회**=부산 범어사가 7월 12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지장 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초재를 봉행한다. 초재에서는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이 법문한다. 10월 11일까지 열리는 고승대법회에는 순천 송광사 조계총림방장 보성 스님, 평창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보은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등이 법문할 예정이다. (051)508-3122

● **전등사 템플스테이**=강화 전등사가 7월 2일 시작한 3박4일간의 불교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가 인기다. 8월 16일까지 계속되는 템플스테이는 7월 16~19일, 23~26일, 30일~8월 2일, 6~9일, 13~16일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예절, 다도, 한지공예, 서각, 인경, 단청, 생태교실, 천연염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032)937-0025

● **부산 여여선원 화엄산림 천일기도 대법회**=부산 여여선원이 매달 음력 초사흘마다 봉행하는 53선지식 초청 화엄산림 법회의 아홉 번째 법단이 7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51)853-5486

● **강화국제연등선원 청소년 영어캠프**=강화국제연등선원이 7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아비라 기도, 참선, 발우공양, 기본교리, 300배 참회기도, 수계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차 7월 23~26일, 2차 30일~8월 2일, 3차 6~9일, 4차 13~16일이다. (032)937-7033

● **실상사 불교문화체험형 '산색'**=남원 실상사가 7월 14~15일 실상사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 '산색'을 마련했다. 실상사를 둘러보며 역사와 전통을 배워보고,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063)636-3031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❸

동산법문, 선종교단 전통 수립

(東山法門)

<유마경> '방편품'에 '일체치생(一切治生)'을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마거사의 삶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중도적 생활 그대로가 도업(道業)을 성취하는 장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유마거사는 "속인으로 백의를 몸에 걸치고도 사문의 수행을 완수하며, 재가에 있으면서도 삼계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처자가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한 범행으로 어른들과 어린이를 가르치며, 모든 생업의 경영(一切治生)이 순조로워 세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다."(<維摩經> '方便品')

이러한 대승경전의 '치생산업'의 사상은 대승계율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범망경> '39경계(輕戒)'에는 "불자들은 언제나 일체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승방을 건립하고 산림에 전답(田畓)을 마련하고 불탑을 세우며, 동하안거(冬夏安居)에는 좌선할 수 있는 처소와 불도를 닦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답을 경작하는 노동과 안거수행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승경전의 노동생산설과 중국의 치생산업설이 일상의 수행과 결합하여 당나라 시대의 삼계교(三階敎)가 탄생하게 된다. 삼계교의 창시자 신행(信行)은 노동생산과 빈민구제를 통하여 노동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수행공동체적 결사(結社)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노동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정신이 기본이 되어 선종의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선풍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❸중국 선종의 노동-(1) 백장청규와 보청(普請)

중국 선종에서 맨 처음 교단을 형성하고 교단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노동 작무를 일상생활에 도입한 것이 동산법문(東山法門)이다.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신(道信)과 그를 계승한 홍인(弘忍)은 기주 황매의 쌍봉산(雙峰山)을 근본도량으로 하여 500여 대중이 운집하여 노동과 수행을 겸하는 수행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종교단은 노동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중에서 이미 운집 대중이 몇 백을 넘어서면 단월들의 시주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홍인은 "낮에는 노동에 열중하며 대중을 공양하고 밤에는 좌선하기를 새벽까지 하였으며, 일찍이 게으름을 피운 일이 없었으며 여러 해를 지극히 열중하였다"(<傳法寶記> '弘忍章'.<歷代法寶記> '弘忍章',<大正藏>제51권, p182上.)라고 전한다. 그가 일찍이 수행자가 산림 가운데 주거하는 이유에 대해 "심산유곡에서 자란 나무가 낫과 도끼에 베임을 피해서 큰 나무로 자라서 장차 동량(棟梁)으로 크게 쓰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산중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산중에서 수행함에 반드시 전답을 개간하여 농경에 힘써야 함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염송설화>에는 홍인이 전생에 산중에서 평생 소나무를 심으면서 수행한 도인이라 하여 그 별명이 '재송도인(栽松道人)'이라 불렸음을 알려주고 있다.

선종은 동산법문 이후 자연스레 노동과 수행을 병행하는 전통이 수립되어,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의 남북종선(南北宗禪)에서는 이미 체질화 되어진 것 같다. 신수가 홍인의 문하에서 나무하고 물 긷는 운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혜능 역시 행자시절 8개월간 방앗간에서 중노동을 하였으며, 수법(受法) 이후 16년간 숨어서 행각하는 동안 온갖 궂은 일로 연명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혜능을 평하여 말하기를,

옳고 그름(是非)을 논하는 장(場)에 함구하고, 색과 공의 경계를 마음에 융합시켰다. 노동에 힘써 대

노동·좌선 병행 자급자족 집단 형성
정치 중심 벗어나 서민 대중 속으로

중을 공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사위의(四威儀: 行住坐臥)가 모두 도량이고, 삼업(三業: 身口意)을 모두 불사로 삼았다.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둘이 아니며(動靜不二), 내지 말함과 침묵함이 항상 하나이었다(語默恒一).(<楞伽師資記>,<大正藏>제85권, p 1289中.)

혜능의 남종선은 정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므로 국가의 원조나 관료 및 백성들의 보시를 최소화하며 자율적이며 자주적인 노동과 청빈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즉 혜능의 남종교단은 왕공 사대부의 후원으로 교단을 유지했다하기 보다는 서민 민중들과 함께 일하며 수행하는 대중불교적 면모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남종선의 가풍은 훗날 생활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활인 생활선(生活禪)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혜능 남종선의 가풍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좌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서 일하며 일체 경계를 대하는 가운데서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지를 역설하고 있다. <단경>에 "밖으로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자성이 공함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라고 좌선을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요,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것이 진정으로 고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집중탐구-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2,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일원초등학교 원정숙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함께 마음여행에 나섰다.

"오늘 우리 마음여행 하기로 했죠? 우선 복식호흡부터 시작해요!"

장맛비가 쏴하고 운동장을 때린다. 날씨 탓에 조금은 어두운 교실, 스물일곱 명의 아이들이 살며시 눈을 감는다. 이제 복식호흡쯤은 문제없다. 마음여행은 이렇게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여행을 이끄는 사람은 서울 일원초등학교 1학년 6반 담임 원정숙 선생님. 일주일에 두번, 아이들과 함께 마음여행을 떠난다.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과학원이 개발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이하 한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마음여행은 아이들에게 마음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몸은 교실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도, 놀이공원에도 갔다 올 수 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은 한영이가 아침부터 울음을 터뜨렸다. 앞에 앉은 기준이와 필통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 그만 싸움이 되고 만 것이다. 마음여행이 시작되고도 한영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거린다. 이때 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안한다.

"여러분, 한영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내 봐요. 한영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마음의 용광로 속에 넣고 녹여버리자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마음법칙에 따르면 '마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면 한영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화의 기운도 없앨 수 있다. 아이들은 어느새 저마다의 마음속 용광로를 떠올린다. 친구와 싸운 마음, 엄마 속을 썩인 마음 등 미운 마음들을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마음여행이 계속되자 한영이가 눈물을 그쳤다.

'마음은 모두 연결' 스스로 마음 느끼도록 도와야
"많은 것 바라면 안돼…달라진 아이들 신기해요!"
불교와 인성교육 많은 접합점 지녀 가능성 충분

마음속을 이리저리 여행하고 온 아이들에게 종이가 한 장씩 주어진다. '마음의 여행 노트'다. 알록달록한 종이에다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무엇을 녹일 것인지, 무엇을 캐내야 할 것인지 적기 시작한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과연 마음여행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울 법 하다. 사실 '마음'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아이들 스스로 마음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여행의 참 의미일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요. 그저 아이들이 조금씩이나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대만족인걸요."

원 선생님이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는다. 마음여행 덕분인지 1학년 6반은 어딘가 다르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이 산만하지 않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비결 좀 알려 달라"는 이야기가 곧잘 나온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원 선생님은 한나무 프로그램이 개발되던 2004년부터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 시험 운영하는데 힘써왔다. 원 선생님 스스로가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의 자유로움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더욱 마음공부와 인성교육을 접목시킨 한나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요즘 들어 아이들에게 특히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1학년 아이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얼마나 영리한데요. 하지만 똑똑해진 대신 삭막해졌어요. 자기 밖에 모르고 누가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하려 들지 않아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학습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불교의 좋은 마음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마음여행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마음이다.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은 딱딱한 도덕교육이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참 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가 타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로워진다. 아울러 나와 내 친구들, 선생님들의 마음이 모두 이어져 우리는 생명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한나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컴퓨터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나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은 마음공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마음일기 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글도 올릴 수 있다. 즉 한나무 사이트에서 학급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의 이야기는 물론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작성했던 마음일기를 공책으로 받는다. 나름대로 '회향'의 과정도 거치는 셈이다.



지난 해 원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생들의 경우, 한나무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은 시험 성적에 목숨을 건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커져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불안감이 자신감을 압도해버린다.

원 선생님이 맡았던 아이들은 시험공부 하기 전, 마음공부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첫 번째로 한다. 그러고 나서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이 꽤 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 쓸데없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덤벙거리다 실수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늘 친구들과 다퉈 마음이 쓰였던 상우(12)의 경우 스스로 "'욱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마음 여행을 통해 많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예전엔 맘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덤볐는데, 요즘엔 이상하게 마음에 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사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시키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예민한 아이들은 "선생님, 왜 불교이야기해요?"라고 대들면서 거부하기도 했다.

그럴 때 원 선생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우선 해보자"고 말했다. 종교가 달라도 분명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그 아이가 찾아와 되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원 선생님은 불교식 인성교육이 어디에도 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원 선생님은 이제 한나무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교에서 쓰였으면 하고 바란다. 직접 시행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았기에 더욱 그렇다. 한나무 프로그램이 좀 더 다듬어져서 학교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교재로 출판되는 것도 시급하다. 선생님 개개인의 능력이 보다는 불교적 인성교육 방법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 선생님들께서 더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부딪쳐봐야 합니다. 불교와 인성교육은 많은 접합점을 갖고 있어요. 마음법을 교육 속에서 당당하게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는
'체험학습 방과후 박람회'가 개최된다. 여름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체험학습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체험관과 테마별 체험학습 시연장, 기자재 · 도서교육서비스 체험관이 설치된다. 7월 12일~14일까지. 무료 관람. (02)557-6776

서울 축제소극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퓨전 국악뮤지컬 '달라이야기' 공연이 계속된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로 듣는 순수창작곡의 즐거움을 전해줄 이 공연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한다. 8월 26일까지.(02)3473-1244

예산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는
8월 25까지 '예당호반영화축제'가 열린다.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온가족을 위한 영화상영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이 행사에서는 '괴물', '박물관이 살아있다', '복면달호'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이 상영된다. 무료 관람.

해남 땅끝 송호해수욕장에서는
8월 19일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룡발굴체험과 모래사장 달리기, 씨름대회, 모래성 보물찾기 등은 물론이고 7월 27일에는 해남군 고등학교 총동아리 록페스티벌도 열린다. (061)530-5229

파주 예술마을 헤이리에서는
'동고동락'이라는 제목으로 일본현대예술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헤이리 18개 전시장 및 야외공간을 활용한 이번 전시에는 약 250여점의 예술작품이 출품됐다. 기간은 7월 29일까지며 전시기간 내 주말에는 영화도 상영된다. (031)957-6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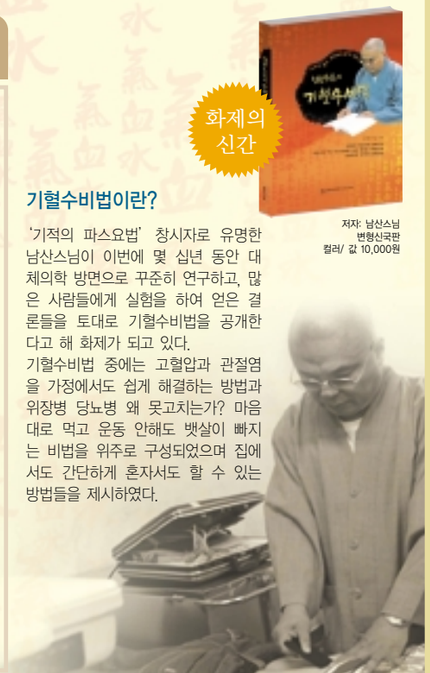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은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닥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저의 고향은 반농반어 촌이에요.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랍니다. 가끔 논다랑이를 지나 갯벌에 갔지요. 가다보면 방천숲이 보였지요. 그곳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오는 길엔 버들목을 거쳐 왔지요. 아마도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런 자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비아니 : 얄팍하게 저며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운 쇠고기. (송씨는 새로 구워 온 너비아니 접시를 상 위에 올려 놓으며, 신호의 눈치를 살폈다.)<최일남, 거룩한 응달>

다랑이 : 1)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 논다랑이라고도 해요. (작은 다랑이는 그나마 쟁기를 댈 수가 없어 따비로 이겨야 했다.) 2)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논다랑이를 세는 단위. (가파른 비탈을 쪼아 만들었기에 꼭 멍에처럼 휘어든 논배미들이 열 다랑이도 더 넘는다.)<김춘복, 쌈짓골>

방천숲 :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숲.

버들목 : 버드나무를 심은 둑. 버들방천

된 바람 : 빠르고 세차게 부는 바람, '북풍'의 다른 말.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문구 作 '관촌 수필'

<관촌 수필>은 연작 소설로 모두 여덟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일락서산', '화무십일',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 '관산추정', '여요주서', '월곡후야' 등이지요. 제목을 '수필'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의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에피소드들을 나열한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꾀하고 있어요. 여기 소개하는 '일락서산'은 산업화로 피폐해진 농촌현실에 대한 비판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오랜 타관생활 끝에 고향에 들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감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관촌 수필> 가운데 첫 번째 발표된 것이지요.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는 고향을 찾아가 전형적인 조선인이었던 할아버지, 과격한 좌익 사상으로 희생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그늘에서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는 오랜 타관살이로 인하여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나'의 3대를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는 자전적, 독백적, 사실주의적 작품이지요. 시간적 배경은 1940년 농촌 마을로 '관촌'이라는 마을이 공간적 배경인 연작 소설, 단편 소설, 자전적 소설, 순수 소설이지요.

'나'는 성묘를 위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오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선 '나'의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 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나무가 서 있던 거리엔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서 있다. 또한 내가 살았던 옛 집의 모습은 나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여, '나'는 실향민이 되어버리고 만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팔순 고령으로, 복고주의적인 향수를 버리지 못해 나에게 한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나는 친구가 없어 고적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결국 '나'는 아는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마을을 돌지 않기로 한다.

일인칭 독백체 훈훈하게 전개
걸쭉한 입담 넉넉한 해학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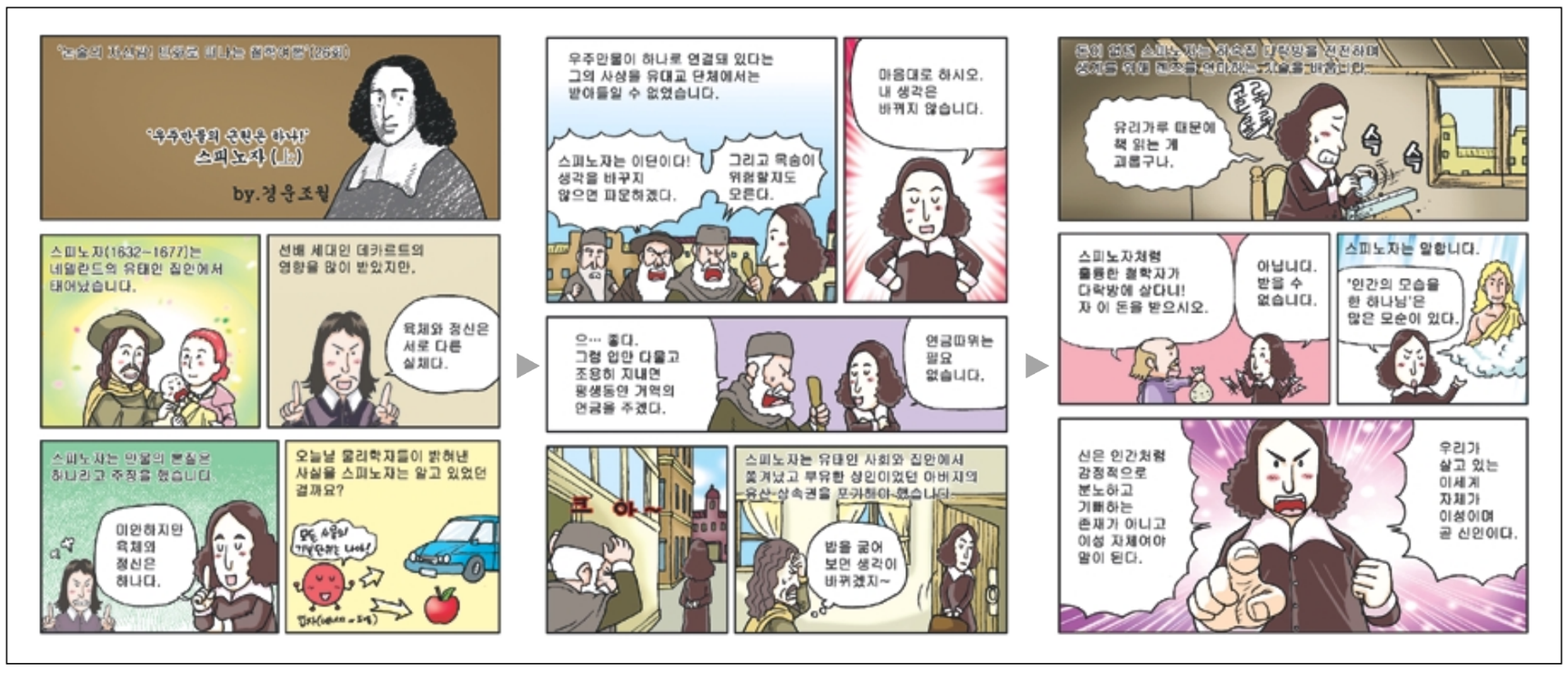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가훈을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몇 척의 어선을 가진 선주였던 아버지는 광복을 전후하여 사농공상의 서열을 망국의 풍조로 지적,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실천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어 집안은 쑥밭이 되고 만다. 이런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가졌다.

'나'는 읍내로 나가는 길에 잠시 발을 멈추고 옛 집을 다시 본다. 그리고 칠성바위 앞을 바라보는데 할아버지의 환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넋만은 칠성바위 언저리에 묶여 있을 것만 같다. 다시 옛집을 보았을 때 서산마루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왕 소나무'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연상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 뿐만 아니라 산업화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느끼지요. '나'의 과거의 한복판에 자리한 어른은 '할아버지'이지요. 할아버지는 명문 가문으로서의 명예심이 남달랐고,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며, 의기와 선비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던 분으로 나타나요.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보수적 정신, 선민의식을 교훈으로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실향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아픔과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비극이 개입되어 있지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아픔에 젖어 있기도 해요.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와 일인칭 독백체의 문체는 작품 전체를 훈훈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빚어진 농촌의 황폐화, 인간 소외와 갈등 등을 작가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농촌 공동체의 따뜻한 인간애와 결부시키면서 현실적 관점에서 조응, 비판하고 있지요.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농촌문제를 근거리에서 조명하여 비교적 사실적인 방식으로 걸쭉한 입담과 넉넉한 해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소설 읽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사라진 핵가족에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게 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배울 수 있답니다.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아빠와 사이좋게 지냈으면!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긴 참 힘든 것 같아요. 전 고1인데요, 아빠는 항상 바쁘세요. 언젠가부터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아빠랑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D:궁금이)

편지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들은 40~50대가 되면 한창 일에 바쁘시고, 일에 지쳐있기 마련이랍니다. 가족을 위해 늘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의 무게라고 할까요? 궁금이님이 어릴 때는 딸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많이 놀러 다니고 아빠가 개구쟁이가 되어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딸이 숙녀가 되어 가면 아빠는 조심스러워진답니다. 딸이라고 해서 마냥 아이처럼 대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아빠가 숙녀가 된 딸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면 아빠도 어떻게 말을 걸어야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낯설어지기 마련이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사춘기 소녀에게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자랄수록 딸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지고 더 애틋해진답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이님 보다 아빠가 궁금이님과 더 얘기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하실 걸요?
일단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렵다면, 궁금이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아빠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편지 끝에 "답장은 제 방 첫 번째 책상 서랍에 넣어주세요~"라는 센스 있는 말을 덧붙여서 아빠가 편지 답장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빠도 훨씬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한 번 주고받고 나면 아빠와 공원이나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해봐요. 이제는 아빠의 보호만 받는 딸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아빠는 정말 좋아하실거예요. 궁금이님으로 인해 아빠가 행복해하시면 모두다 행복해지겠죠? (바다상담연구소)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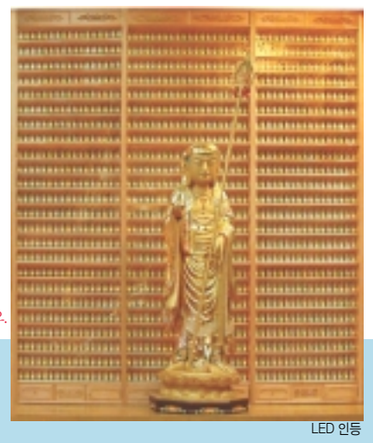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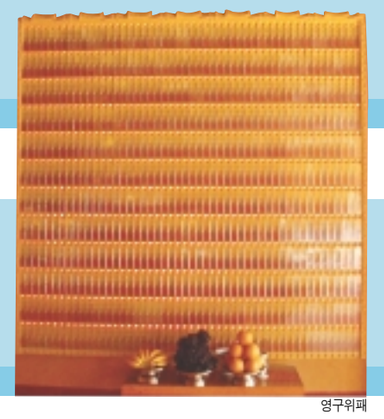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LED 인등


영구위패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깨달음의 여정은 고귀한 노동"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괭이 자루, 의지는 쟁이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 날과 작대기 입니다."
〈숫타니파아타〉



아직도 '불교는 가만히 앉아 도나 닦는 현실 도피적 종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진 않겠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현대 첨단 과학 사회에서 노동의 일반적 개념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에서 정신노동으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된 만큼 수행과 전법도 모두 노동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교와 노동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불교는 활발한 노동의 종교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은 철저한 '행위'를 통해 구체화 된다.

생활이 곧 수행이고 그 속에 전개되는 모든 활동이 고귀한 노동이다. 올바른 불자에게 있어 삶은 노동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는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전개하는 구국구세운동의 두 번째 테마다. 노동, 불교에 그 가치를 묻는 자세는 매우 숭고하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우리는 일을 통해 성불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송암지원 엮음
도피안사 펴냄 | 1만5000원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운동 2번째 테마
월암 스님 '선종의 노동문제' 등 게재

前 동국대 교수 호진 스님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의 행위를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한 노동으로 규명한다. 거기에 부와 분배에 대한 연기적 가치를 이해하는 '코드'가 존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노동에서 장엄으로' 월암스님(벽송사)의 '선종의 노동문제' 부천대 김광식 교수의 '용성선사의 선농불교' 불영사 주지 학송 스님의 '세계화와 직업윤리' 동방대 김재영 교수의 '광덕 스님의 반야행원사상과 노동관'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노동과 불교적인 정신건강' 등이 실렸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소통과 치유를 위한 '진혼곡'



청앵
이대흠 지음
실천문학사 펴냄 | 9800원

보림사가 위치한 전남 장흥군 배경
서민의 역사적 갈등과 화해 그려내

댐 건설 후보지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일대는 산 좋고 물 맑고 들이 넓어 사람 사는 장소로는 최고의 땅이다.

특히 중국 · 인도 · 한국에 있는 동양 3보림 중의 하나이며, 선종이 우리 나라에 가장먼저 들어와 정착돼 현재 조계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가지산 보림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유치지역은 지난 100여 년간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힘든 곳이었다. 1894년 일어난 갑오농민전쟁 당시, 유치면이 포함된 장흥군 일대는 농민군의 최후 격전지였다.

또 오십 년 이상 된 집이 한 채도 없었을 정도로 한국전쟁 당시 군경 및 빨치산들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1994년 <장작과비평>과 1999년 <작가세계>에 각각 시와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대흠씨(본지 객원기자)가 출간한 첫 장편소설인 <청앵(靑櫻)>은 수몰된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사실적인 사건을 빌려 쓴 작품이다.

첫머리 새봄의 역동적 풍광을 생생하게 묘사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양상을 미리 짐작하게 하고 있는 <청앵(靑櫻)>은 마을 사람들의 첨예한 갈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실과 허구의 역학을 잘 조율함으로써 사뭇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시한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비극적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전남 장흥군과 유치면을 주요 배경으로 삼아 이야기 자체의 외연을 확장했다.

이념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어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을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적 갈등에 파장을 미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젊은 청년들이 100여년간, 공권력의 횡포 속에 수난 당해온 지역민들의 소통과 갈등 해소의 장으로 마련하는 진혼굿을 올리는 것으로 역사와의 화해를 시도한다.

역사의 맥을 타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승되어오면서 얽히고 설켜 옹이로 가슴에 박혀버린 한을 사회적 차원에서 풀면서 푸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번뇌 씻어주는 '인생 지침서'



심경으로 깨닫는 인생 행복
동방문에 지음 | 남종진 옮김
다산미디어 펴냄 | 1만2000원

"舍利子(사리자), 是諸法空相(시제법공상), 不生不滅(불생불멸), 不垢不淨(불구부정), 不增不減(부증불감)-제자들이여, 형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텅비어 있고 바뀔 수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심경>중에서)

<심경>은 원래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불리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처음으로 쓴 글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 주옥같은 불교의 핵심이 명쾌하게 담겨 있다. 바로 '공(空)' 사상이다. 만사는 모두 '공'이니 먼저 나를 비우라는 것이다. 마음이 비워지면 지혜가 생긴다고 강조한다.

원문과 함께 상세한 해석을 곁들인 이번 책 속에는 평화, 희생, 평등, 욕망의 억제를 이야기 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선행을 행하며 번뇌를 씻으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언제든지 마음속의 갈등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손에 금방 잡히는 가까운 곳에 두며 곱씹어 볼만한 인생 지침서 같다. **김주일 기자**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



지혜로운 삶을 위한 올바른 신행생활 50
남전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 | 8500원

"스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소는 가급적 조용한 곳을 택해 하루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하세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며, 개인적으로 할때는 삼귀의, 참회, 발원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50가지를 추려 남전 스님(화성 용주사 포교국장)이 설명해 놓았다.

질문은 "초보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참 불자가 될 수 있나요?" "열반은 죽음 인가요?" "불교에 많은 종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등이다. 불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이 대다수여서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 상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고운 우리말로 풀어쓴 금강경



금강경-나 없는 지혜, 나 없는 자비
이포 옮김 | 호미 펴냄 | 1만원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며 그 기본을 이루는 경전이다. 육조 혜능 선사 이래로 중국 선종에서 가장 중시해 온 경전이기도 하며, 특히 선(禪)을 기본 종지로 삼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경전인 만큼 그동안 <금강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번역됐다. 하지만 대다수 번역불서가 한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투를 깨뜨리지 못해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이번에 한글로 <금강경>을 번역한 이 책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의 운율을 중시해 번역한 새로운 형식의 번역서이다. 구마라집본을 밑본으로 한 이 책은 경전의 전문 용어를 일상 생활속 용어로 풀어 옮겼으며, 불필요한 조사나 토시를 없앴다. 또한 다소 구절을 되풀이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숨은 행간의 뜻을 해석해 놓아 읽기가 편하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5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7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8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9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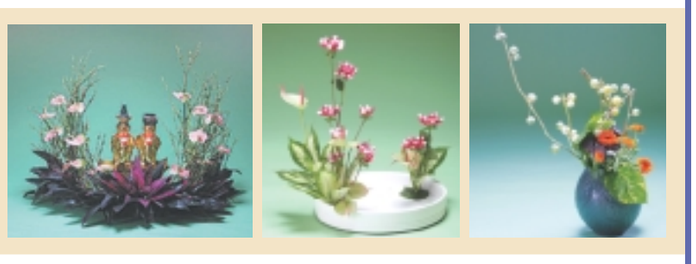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보림 지연 편저/ 도서출판 인아
263쪽 / 값 20,000원

-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꽂이와 병꽂이의 요령 4)수반 꽂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꽂이 14가지 형 外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 · 면 · 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보림 지연스님
- 한국 꽃꽂이 협회(금연중앙회) 1972년 입문
-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이상 출품
- 전국 불교꽃꽂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 전국 불교꽃꽂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봉녕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 한국화예디자인학회 이사(현)
- (사)한국꽃꽂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본인 부담)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도전하는 사람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참여불교 ‘엄홍길의 정상경영학’ 특강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7월 3일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제 4차 리더스포럼을 열고 강사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5월 31일 로체샤르(8400m)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최초로 8000미터급 16좌 등정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재가연대가 마련한 자리다.

엄홍길 대장(48)은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회원들 앞에서 그 동안의 등정 과정을 전했다.

도봉산과의 인연

저와 산(山)과의 인연은 세 살때 도봉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산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그 후 2000년 5월까지 줄 곧 도봉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산은 제게 삶의 터전이며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내려오기 싫어도 학교를 가려면 내려와야 되고, 또 집으로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모든게 불편한 산속에 사는 것을 비관하기도 했으며, 부모님을 심하게 원망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산 중턱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지게로 20분 정도 매일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의 반복이 오늘날에 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산 등반을 할 때면 매번 30kg이상 되는 짐을 져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돼 다른 대원들보다 적응이 빠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등에 안지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산에 살게 해준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버릇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산을 많이 타서 그런지 평지를 걸어가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굴곡과 경사가 있는 산비탈이 힘은 들어도 오히려 편하지요.(장내 웃음)

도전은 내 인생의 뗄 수 없는 운명

제가 첫 고산 등반을 한 것은 1985년부터 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8848m)가 첫 등반지 였습니다. 자신감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등반을 가면 원정대가 꾸려집니다. 일종의 조직이 형성되지요. 식량담당, 장비담당, 수송담당 등 각자 임무가 주어집니다. 등반에 앞서 조직적인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미리 쌓게 됩니다. 하지만 첫 등반 당시 대원들은 모두 고산 등반이 전혀 없는 무경험자들 이었습니다.

훈련과 경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고산 등반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치 식량과 장비 등 사소한 것 모두를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원정대원들간에 서로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면 결국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산에서는 ‘나’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라는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여담 하나 해 드릴까요? 국내에 있는 산을 올라가려면 큰돈이 필요 없지만 8000미터급 산을 오르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쪽에서 올라가면 1인당 약 1천 2백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식비, 운송비, 항공료 등을 합치면 수억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첫 등반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감과 패기를 통해 극복하자며 일단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위에서 “미쳤다”고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실패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두 번째 다시 올라갔습니다. 원인분석을 철저히 했으며, 준비도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우리의 정상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셸파(짐꾼)가 7000미터 지점에서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산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죽어가는 동료를 보며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위대한 대자연앞에 인간은 한낱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극한상황에 몰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정상을 밟은 것이나 못 밟은 것이나 대자연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나에게서 변한 것이 있을까요? 그저 해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한동안 산을 쳐다보기조차 싫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전은 내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운명이며, 한 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보고 그만두자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곳엔 산이 없다

1988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박수)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 듯이 등반도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는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6번이나 실패하는 아픔을 다시 맛봐야 했습니다. 산과 자연은 절대로 욕심을 가진 인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산을 보면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산에 오르면 그곳엔 산이 없습니다.

1985년부터 16년동안 오른 히말라야 8000미터급 산이 14개(나중에 두개 더 있다) 였지만 그 기록 뒤에는 분명 14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따지면 셀 수도 없습니다. 이틀동안 눈 속에 갇혀 비부아크(노숙)를 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낭가파르밧 원정때는 동상에 걸려 엄지발가락 한 마디와 두 번째 발가락 일부를 잘라야 했습니다. 강풍에 몸이 날아가 죽을 뻔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16년동안 친형제나 다름없었던 8명의 동료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잊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88년 네 번째 시도한 안나푸르나 등정길에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 미끄러진 셸파를 구하려다 같이 추락해 오른쪽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채로 다리를 다시 뽑아 돌려 가까스로 하산했습니다. 덜렁거리는 다리를 대나무로 부목해 2박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죽는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산하면서 살아있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수없이 되뇌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려와 보니 입술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산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치료 받는데 병원에서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다는 말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끝에 10개월만에 다시 안나푸르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한 발로도 네 번이나 실패했던 그 산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박수)

만일 제 등반과정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 졌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16좌 완등이란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더 강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했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전은 존재에 대한 이유이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도전을 끝낸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열정 없이 결코 성공도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 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도전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정리=김주일 기자

어릴적 산 속 생활이 오늘날 약
자연은 욕심 가진자 용납 안해
꺾인 다리 이 악물고 재활치료
실패 경험 있었기에 16좌 완등



현대불교 자료 사진



■ 16좌 완등 등반일지

	연도	산이름(높이)
1.	1988	에베레스트(8848m)
2.	1993	초오유(8201m)
3.	1993	시샤팡마(8012m)
4.	1995	로체(8516m)
5.	1995	마칼루(8463m)
6.	1995	브로드피크(8047m)
7.	1996	다울라기리 (8172m)
8.	1996	마나슬루(8156m)
9.	1997	가셔브롬(8068m)
10.	1997	가셔브롬2(8035m)
11.	1999	낭가파르밧(8126m)
12 .	1999	안나푸르나(8091m)
13.	2000	K2(8611m)
14.	2000	칸첸중가(8586m)
15	2004	얄룽캉(8505m)
16.	2007	로체샤르(8400m)

■ 엄홍길 대장은?

- 1960년, 경남 고성 출생
- 한국외국어대 중국어 학사
- 2000년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좌 완등
- 2001년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 2004년 히말라야 8505m 얄룽캉봉 15좌 완등
- 2006년부터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 2007년 히말라야 로체샤르 16좌 완등
- 저서 <8,000M 의 희망과 고독 > <엄홍길의 약속 > <거친산 오를땐 독재자가 된다> 등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 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은 옴마니 반메홈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용으로 최고입니다.

▶1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123cm×198cm×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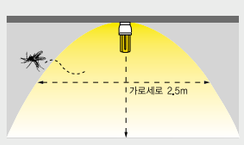
구입문의 : 080-788-7878
농 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깔다구 퇴치램프!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중 합작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기,전구만 바꿔끼우면 간단히 해결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에도 좋아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만점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모기퇴치 범위]

●사용장소 : 사찰,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핍박받으며 보낸 80평생…정순왕후여! 한 푸소서



6대 단종 비 정순왕후 송씨- 사릉(思陵)



사릉 전경.



제향 참반원의 숫자도 조촐하다.

제향을 서둘러 마치자 기어이 하늘이 터졌다. 아침부터 시커멓게 심술인지, 독기인지, 원한인지, 잔뜩 머금고 있던 하늘이 북북 찢어진다. 천둥 번개가 연거푸 으름장을 놓더니 소나기가 쏟아진다. 3월 비 치고는 세차다. 찬비는 이내 우박으로 변한다. 바둑돌만한 우박이 파편처럼 사정없이 내리 꽂힌다. 참반원(제향에 참가한 사람)들은 체면 불구하고 관리소 옆 비닐하우스로 냅다 뛴다. 초대받지 않은 참반원인 나도 총탄을 피하는 전장의 병사처럼 머리를 감싸며 뛰었다.

"왕후님이 아직도 원한을 풀지 않았구먼."

"쉽게 풀리지 않겠지. 80평생 수모와 핍박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남편을 300리 밖에 두고 그리워해야 하니 오죽하겠는가."

"그러게나. 영월로 천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인의 한풀이니 너무 서운해맙시다. 선생은 어느 문중에서 오셨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마련된 제향 뒷풀이 자리다. 검은 양복으로 정장한 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불쑥 내게 묻는다. 당황해하며 그냥 추모객이라고 얼버무렸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오래된 한을 되짚는다.

사릉 제향에 참가한 이들은 세 부류다. 단종과 정순왕후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가례를 올리고 동거한 기간이 1년도 안 된다. 후사가 있을 리 만무하다. 단종의 직계 후손은 없다. 제향을 주관하는 전주 이씨 문중 사람들, 정순왕후의 친정인 여산 송씨 문중 사람들 그리고 이곳이 선산인 해주 정씨 문중 사람들이 모여 매년 정순왕후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사릉 능침 근처에 오르면 주변 풍경이 의아하다. 능 주변에 일반 무덤이 여러 기 있다. 능으로 택지되면 사방 10 리 안에 있는 주변 무덤은 강제 이장된다. 마을마저 철거된다. 그런데 사릉 바로 곁, 불과 100~200미터 곁에 무덤들이 있다. 사연이 많다.

1440년(세종 22년) 판돈녕부사 송현수의 딸로 태어난 정순왕후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 가히 종묘를 보존할 인물이라 하여 1453년(단종 1년) 간택되어, 이듬해 15세로 왕비로 책봉된다. 1455년 세조가

단종 누이인 경혜공주 시댁 해주 정씨 묘역에 안장
숙종 때 사능 능호, 주변에 일반 묘 있는 유일한 능
정순왕후가 살던 정업원 터에는 현재 청룡사 있어

즉위하고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자 의덕왕대비에 봉해진다. 단종이 사사된 후 세조3년(1457) 노산부인으로 강봉된다. 송씨의 운명은 기름을 안고 불로 뛰어든, 예견된 길이다.

청계천 영도교(永渡橋)에서 18세 소녀 왕비 송씨는 영월로 떠나는 17세 소년왕 단종을 영원히 이별한다. 영도교, 영영 이별한 다리, 임이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고 후세 사람들은 의미를 붙인다.

궁궐에서 쫓겨난 송씨는 지금의 동대문 밖 연미정동(숭인동) 동망봉 기슭에 초가삼간을 짓고 한 많은 여생을 이어간다. 정업원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함께 쫓겨난 세 명의 시녀와 살았다. 시녀들이 해온 동냥으로 끼니를 잇는 비참한 생활이었다. 근처 동망봉(東望峰)에 올라 아침저녁으로 단종이 무사하기를 빌었지만 통곡은 허사였다. 왕비의 오열과 궁핍을 인지한 마을 여인네들이 줄을 서서 쌀과 푸성귀를 사립문 위로 던져 놓고 갔다. 서슬이 녹지 않은 세조는 이 보고를 받고 부녀자들이 정업원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금지했다.

민초들은 다시 지혜를 짜냈다. 정업원 인근에 금남(禁男)시장인 채소시장을 열었다. 금남이니 감시하는 관리가 접근할 수 없다. 북적거리는 틈을 타 여인네들이 곡식과 채소를 정업원 담 너머로 던졌다. 이후 송씨는 자줏물 들이는 염색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그 골짜기를 지금도 자줏골이라 부른다.

세월이 흘러 세조는 자신과 가족에게 액운이 겹치자 퍼런 서슬이 녹아 참회한다. 송씨의 비참한 생활을 전해들은 세조는 정업원 근처에 영빈전이란 아담한 집을 짓고 궁핍을 면할 넉넉한 식량을 내렸으나, 그것을 넙죽 받을 송씨가 아니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이가 바스러지도록 원한을 짓씹으며 80평생을 보냈다. 무서운 에너지다. 차라리 요절이라도 했으면 한의 깊이가 덜했으련만.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이 '송씨 부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송씨 부인이 바로 정순왕후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한 많은 여자의 일생, 엉겁결에 권력의 핵심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천추의 한을 남긴 여인, 정순왕후는 82세(1521년 중종16)로 생을 마감한다. 죽을 당시 신분은 왕후가 아니었다. 국장의 예를 갖춘 능을 조성할 신분이 아니다.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시댁인 해주 정씨 집안에서 장례를 주도했고 해주 정씨 묘역에 안장됐다.

그 후 177년이 지난 1698년(숙종24년) 11월 6일, 단종이 복위되자 송씨도 정순왕후로 추복되고 종묘에 신위가 모셔지고 능호를 사릉이라 했다. 능이 되었는데 주변 무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릉 총리사(관리 책임자) 최석정이 숙종에게 아뢰었다.

"사릉은 본래 문종의 외손이었던 정미수의 사유지이옵니다. 정순왕후께오서 살아서 정미수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승하했습니다. 능으로 봉해졌다 해서 정씨 묘소를 옮기면 정순왕후께오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옵니다. 정씨 묘들을 사릉 능역에 그대로 존치함이 가할 줄 아옵니다."

이에 숙종은,

"오래된 묘는 옮기지 않은 예가 있다. 그대로 두라. 후손들에게 또 다른 한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릉 능역 주변은 일반인의 묘소가 있다. 유일한 예다.

정업원 터에는 지금 청룡사라는 작은 절이 있다. 21대 영조가 이곳을 방문하여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각을 세웠다. 비각에는 영조가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비문이 남아있다. 업을 말끔히 씻어야 극락왕생할 터인데.

한 시간 정도 내리쏟던 우박과 비가 멈춘다. 제향을 마치면 서둘러 돌아가는 가는 것이 상례인데 오늘은 참반원 모두 소나기 덕분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한참 머물렀다. 나뒹구는 빈 소주병이 흥건하다. 정순왕후여! 이제 한을 푸소서.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사릉의 문인석. 다른 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릉은…

6대 단종 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다. 사적 제209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65-1, 면적 146,529㎡(44,325평). 정순왕후는 18세에 홀로 되어 소생 없이 82세까지 살았다. 사릉은 중종 때 조성되었다. 7대에 걸친 왕대를 산 정순왕후를 중종은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를 지낸 뒤 후에 왕후 능으로 추봉되어 다른 능에 비해 단출하게 꾸며져 있다. 능침을 3면의 곡장이 둘러싸고 있으나 병풍석, 난간석이 없다. 무인석도 없고 160센티미터 정도 되는 자그마한 문인석 한 쌍이 능을 지킨다. 사릉은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가 출가한 해주 정씨 가족묘역 내에 있다.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발건강 지압 샌들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풍산동 99%
초극세사 원단
바이오실리콘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건강슬리퍼
발볼조절가능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영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영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합벼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육임직지 한글판 출시
■ 육임의 720과전 상세히 수록
■ 생년월일을 몰라도 궁금한 일이 발생한 시간이나 사람을 만난시간에 해당과전만 보면 모든 사안 정단가능
■ 각 과전마다 필법(백법)을 해설수록
육임직지주해/세종출판사/소담주해
1권 갑자순 2권 갑술순 3권 갑신순 4권 갑오순 5권 갑진순 6권 갑인순 7권 부록
총 7권 180,000원 농협(조일홍) 815132-52-354445
H.P 017-844-7100
TEL 055)362-2799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秘法 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수양기도공부
●1인 1실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구돌,온돌,황토방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명리학 책임지도
과목 : 명리학 + 성명학
28년 실전경력 책임지도함
월4회(토,일) PM 7시~9시(4개월 완성)
(초 · 중급반 2개월+고급반 2개월)
법성사 법성스님(서울 강서구 발산동)
02)2658-7003
011-695-1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 담 환 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바라 · 작법무 · 태평소 ·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 회심곡
성심을 다해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넷)

대승심 대도선의 세계
평상인은 경계를 따라 쫓아나가고 소승인은 생각을 끊어 들어가지만, 대승도는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비추어 홀연히 근원에 도달하는 법으로서, 간화선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대도선 도량을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열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cafe.daum.net/ungeodaedosun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시킬 수 있는 정말 신심나는 실전 한국천도재 의식비법 전수해드립니다
011-854-8107
무불합장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 서화 등등에 능통한 법납 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무보시로 불사 도우며 안거할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처사님이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김태열 결혼정보
국내 초혼, 재혼
국제 결혼 환영
베트남 결혼 전문
참 좋은 인연 맺어드립니다
016-803-6024

신심있는 (女)사무종무원 및 화주보살 님모십니다(숙식가능자)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사미계 수료시 승가대학 입학지원)
▷경기도 안산
011-324-5103

조용한 곳에 부전자리 구하는 비구스님입니다 연락주세요
(서울,경기지역환영)
010-5713-7016

행자, 공양주 구합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공양주보살님과 종무원(PC가능자) 기도하실스님 모십니다
▷경북
010-9357-69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청지역
011-9284-6136

1년간기도 하실스님 모십니다
(산 사)
011-696-8500

55세이상 신심 돈독한 공양주보살님 한분 모십니다
032)772-7029
011-331-2266

산세좋은 사찰에서 부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744-165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60세)
▷사찰거주 가능한 분
051)508-45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세~60세)
식구 1인 같이 살 수 있음
급여는 스님과 상담 후 결정
051)524-8982
010-7574-1515
보광정사

부전(소임)스님 자리원합니다
필요한 곳 연락 주십시오(비구승)
010-9188-8544

기도염불 잘하는 조계종 비구임 부산지역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2835-5751

예불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노장스님 환영)
011-840-4355
051)334-30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소백산 천년고찰)
▷경북지역
011-527-063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포항
010-7192-5262

쌍용자동차 7월 무이자 실시



스님, 불자가족을 위한 특별판매
① 화물 5인승(자동차세 28500원)
② 차량계약금10만원으로 구입,인도까지
③ 최고 280만원D.C(렉스턴)
담당 유기천 대리 016-270-7197
담당 차승엽 대리 017-595-1211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예비스님) 모십니다.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끌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3개월 완성 ●속성반 :1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사주팔자, 빙의령, 질병에 얽힌 삼각 관계를 치유합니다
1.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신분
2. 무당굿을 해도 효과를 못보신 분
3. 우울증, 가위눌림, 정신질환, 사업실패, 가정파탄, 음주, 도벽 등등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왜 들어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 무속인, 전수함, 선착순 4명
031)241-3487 / 031)257-3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7. 7. 11(수 · 목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매주 화요일 무료 공개강좌
※ 매주 금요일 임상 및 개인지도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안내
사주는 감정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 위주로 풀이하고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잡기가 어려운 사주를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30여년간 연구와 임상을 총정리한 태극사주는 운명의 진리를 거울처럼 밝힘으로서 일사천리로 판단하고 감정할 수 있다. 성격과 지능과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청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실제 감정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080-322-4684)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치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다.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주시어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 법을 만인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요.
- 금강좌 합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위치 : 경남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1평 ● 요사 : 32평 ● 법당 : 20평 ● 요사 : 19평 ● 법당 : 28(목) ● 요사 : 150평
● 부지 : 910평 (하천부지 500) ● 부지 : 605평 ● 부지 : 5700평
● 가액 : 2억5천 ● 가액 : 2억8천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정동진
● 보증금 1000만원, 월15만원
● 넓은 텃밭, 모든시설완비
011-9918-5251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부지 : 약11,500㎡ (3,500여평)
● 지목: 전
● 천하명터, 소백산 준령이 한 눈에
● 가액 : 상담 후 절충 가능
011-582-427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공영 주차장앞(상가 지역)
● 5층건물 중 4층 42평 방1칸, 베란다에 주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 (보증금 절충가능)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258-643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220평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목조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억3천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서울 광진구 (상가3층 건물)
● 법당 시설 일체, A급 손색없음
● 신도방, 스님방, 주방 및 거실
● 보증금(800만원~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양도(2천3백만원)
조정불가
011-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3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42)825-3020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
● 부지: 200평(산자락)
● 법당: 목조 25평
● 요사채(3동):25평+10평+10평
● 바다가 잘보이는 도량, 정남향,주변경관최고
● 가액:6억5천만원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앞)
● 평수: 7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108-54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구원, 주방 시설완벽
● 삼존불,각단탱화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7406-3866
018-557-5247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산 8-1 신해암
● 대지:100평 건평:30평 임법당
● 텃밭있음, 시설일체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033)244-2534
011-333-385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대둔산 도술봉 약사 기도도량
● 위치: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 대웅전, 칠성각, 산신당, 영험한 약사용궁, 천신당, 굿당
● 요사채(방4개, 화장실2, 다락1, 거실10평, 주방5평), 대지125평, 전445평 합570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 2개,
● 포장도로 완료, 마당까지 집입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211-4219
041)753-843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5700여평
● 법당 건물 3동, 요사채 4동
● 창고 및 부속 건물 2동
● 가액 : 16억. 절충가능
010-4445-5179

도심사찰임대
● 위치 : 전주 시내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 법당1, 큰방2, 서재방1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 전세 6천만원(월세가능)
● 비구니 스님 도량으로 적합 답사시 의논 바람
010-6411-2882

사찰 터 최적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반야 계곡 (1200평당 15만원)
● 제천시 수산면 남한강 옆 (1400평당 10만원)
● 단양군 · 읍 천동리 소백산 밑 (3000평당 5만원)
016-464-6386
제천시 보월조경 한산 합장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융자 2천만원 포함)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사찰부지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1870평(전)
● 우측에 맑은 계곡, 앞쪽은 큰 하천
● 가액 : 2척9천만원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1)966-1104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2동, 욕실 2(화장실3), 주방(공양간)2, 심야보일러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 대지 660평 건평 53평 (법당 26평,산신당 17평, 요사채 10평) 양옥 신축 5년
● 유명한 약수 및 좋은 정원 있음
● 양도가 : 3억 6천만원
011-424-32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약 120평
● 법당 20평(한옥 단청완료)
● 요사채 2채,30평
● 가액:1억3천만원 (전,월세로 절충가능)
016-533-5100
016-525-0324

사찰임대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 법당25평, 요사채25평
● 마당넓고, 주차장따로 20평
● 용왕당 별도 해수관음 별도 모셔져있음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오래된 사찰,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곳
※꼭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590-2878

사찰(급)안내
● 천하명당, 양쪽계곡 흐르고 전면에 넓은 호수 있음 (토목완공) 광주광역시 30분거리
● 조립식 임법당, 창고, 차고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평수 : 905평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5255-9040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 20평
● 대지 : 350평(실사용 600평) 요사채, 공양실 등 총건물 5동, 전체기와,단청
● 가액 : 전세 5천만원 (양도도 가능)
016-9660-13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도심 포교원)
● 평수:약 40평 법당, 요사채, 주지실,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즉시 입주 법회가능
010-5877-86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연산동(도로변)
● 평수 : 100평(4층, 5층 각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 1. 행자스님모집
2. 사물, 의식, 강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051)867-4567
011-857-19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역에서 10분거리
● 4층 건물에 2층, 법당, 방4개, 창고1
● 평수 40평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완벽하고 깔끔한 포교당임
016-373-1517

사 찰 안 내
●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약 1700평 허가면적:약 550평
● 건물:요사채,산신각포함 약100평
※현재 공사중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히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총 공사비만 약 4억 소요(가격절충)
011-9850-8208
055)572-0405

토굴 및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화령 (고속도로 IC 5분)
● 평수:685평(전체대지)
● 구옥 흙집 있음 (스님 거처하시던 곳) 일부조경시설
● 가액: 칠천오백만원
011-669-957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은행융자 1억5천 가능 즉시 법회가능
●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사찰전세(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근처
● 도량이 넓고 자연환경이 좋으며 건물 3동, 법당 25평, 전체 3,000평
● 보증금 월세없이 전세금만 2천만원
※ 깨끗이 사용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3088-710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 도마 초등학교 부근
● 법당 : 50평(2층)
● 주방, 방3개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 5백만원
017-420-5258
010-7163-6916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암자(급)안내
● 위치 : 보배의 진도 진도읍 염장리 래접산 영구암
● 대지:2500평,법당:약45평
● 삼존불, 탱화시설, 산신각 완비
● 요사채 약50평, 방4, 부엌
● 가액 : 2억 5천만원
061)544-0484
011-9928-0005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평수 : 56평 3층건물중 3층
● 공양간, 방, 욕실
● 전세 : 6천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5778-6462

사찰(급)안내
● 천하명당, 양쪽계곡 흐르고 전면에 넓은 호수 있음 (토목완공) 광주광역시 30분거리
● 조립식 임법당, 창고, 차고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평수 : 905평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5255-9040

암 자 안 내
● 위치: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경치좋음
● 임법당, 연꽃연못, 넓은정원 ● 총320평
● 임대보증금 3백만원 1년3백만원 양도도 가능(1억2천만원)
017-813-9126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충남 온양터미널 부근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60평, 건평 25평 법당(삼존불 봉안)
● 방2, 욕실, 주방(시설완비)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능) 시설 및 집기일체 양도
041)533-0853
010-3011-0853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법사님,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당(불교회관)안내
● 위치:경남 양산
● 2층 60평, 옥상 60평
● 법당 5불전, 회관 및 사무실, 방4
● 회관에서 각종 신행단체 활동과 철학 사경, 교양대학 운영으로 월 1천만원
● 전세 2천만원, 월20만원,시설비 절충
055)382-8277
016-661-3577

암 자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큰방1, 작은방1, 창고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큰방 에어컨설치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손볼곳 없음) 사정상 급 양도
011-9041-134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 대지 : 500평,
● 건평 : 약1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 대지 전체 돌담 법당 뒤 대밭 옛날 장독 100점 포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72-15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두류1동 대구대학 건너 대도로변 주위 대명시장,성당시장 및 서부 주차장 인접
● 2층 평수 약 40평정도
● 정법 포교 도량으로써 법당 내,외부 단청필 (불상후불탱화제외함)
● 주지실, 공양실, 화장실 양호함
● 대불사 관계로 실질금액의 절반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에 양도함
011-9237-3340
055)221-33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 평수 : 3층건물중 2층(53평)
● 아미타불,지장보살,관음보살, 대세지보살
● 신중단,약사불,영단,마이크 (무선),엠프시설(영국제)
● 법당(30평,에어컨),공양실 (에어컨),스님실2개(에어컨)
● 남녀 화장실, 별도 배란다, 주차장: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 2,930만원
010-3151-524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요가, 연령 · 신체에 맞게 배우세요

베이비 요가, 어린이 요가, 임산부 요가, 다이어트 요가, 핫(hot) 요가…. 요가가 대중화됨에 따라 최근 4~5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요가가 선보이고 있다. 나이와 직업 혹은 목적에 따라 이름과 방법이 다른 요가. 하지만 '몸에 좋다' 고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더구나 책이나 비디오 등을 보고 집에서 혼자 요가를 배우는 사람 중 부작용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왜 요가인가?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쉼'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잠을 자거나 가만히 앉아 있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요가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이완하고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음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의 요가 초등교원 연수 현장.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을 통해 요가가 '다이어트 요법' 으로 알려져 요가센터와 다이어트 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요가가 뇌 속의 1차적 차단성 신경전달물질인 '감마-아미노낙산(GABA)' 의 농도를 높여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현대인들의 정신 장애 개선을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도 응용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요가가 흔히 쓰인다.

▷ABC부터 배우세요

"요가 비디오를 보고 따라했는데, 며칠 만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아이가 요가를 하다 인대가 늘어났어요."

최근 병원과 소비자보호원에는 요가를 하다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됐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가를 단순한 스트레칭 운동으로 여겨 준비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요가를 시작해서 일어난 사고들이다. 이처럼 기본호흡 및 동작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책과 비디오를 통해 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뼈와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제대로 배우고 즐길 때 신체 · 정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기본호흡 및 동작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정통요가 수련원에서 배우는 것이 정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본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살을 빼거나 동작을 익히려는 욕심이 앞서면 몸에 무리가 가게 마련이다. 먼저 자신의 몸 상태와 수준을 알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차근히 배우도록 한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굳어 있던 근육을 급격히 움직이면 근육통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허리디스크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요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50대 이후에는 척추에 무리가 가도록 허리를 젖히거나 관절을 움직이면 통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무리하게 다리를 벌리거나 스트레칭을 할 경우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안압(안구내의 압력)이 높은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물구나무서기나 몸을 거꾸로 세우는 동작을 하는 요가의 경우 안압을 높일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요가가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운동으로 인식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뼈나 근육이 약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요가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곳인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하는 곳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가 곁에서 함께 배우면 쉽게 흥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집에서 할 때 주의점

집에서 요가를 할 때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끼는 옷을 피하고, 요가 매트나 담요를 깔아 충격을 완화한다. 요가를 하는 공간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과 지나치게 추운 곳은 피한다. 요가는 위와 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많이 한 뒤에는 4시간 정도, 가볍게 한 뒤에는 2시간 정도 지나서 수련을 한다.

자세를 취할 때는 들숨과 날숨을 동작에 따라 조절하고 눈과 귀, 목구멍 복부를 편안하게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일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중인 사람은 요가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임신 11~13주에는 요가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주 이후에도 복부를 압박하는 동작이나 숨이 차도록 동작을 취하는 것을 삼간다.

효과를 단시간에 볼 생각으로 하루 2~3시간씩 지속하면 무리가 갈수 밖에 없다. 정해진 시간대로 욕심 내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요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YOGA 욕심 버리면 '藥'



피로 회복 어린이 정서 함양 도움
기본 무시하다 뼈 근육 등에 손상
끼는 옷 피하고 담요로 충격 완화

사진제공=도서출판 禪요가.



42. 차의 쇠퇴

조선은 개국 초 억불(抑佛)정책을 펴나간다. 사전(寺田)을 줄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승려의 수를 제한했다. 승려가 되려는 양반의 자제인 경우 포 100필, 서인(庶人)인 경우 포 150필, 천인(賤人)인 경우 포 200필을 관에 납부하게 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했다. 승려의 신분을 낮추어 도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게 하는 등 사회적 활동도 제한했다. 이 같은 불교 탄압정책으로 인해 승려들은 사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문을 닫거나 산속에 은거(隱居)하게 된다.

사찰 주변에서 차 농사를 짓던 사찰 노비들은 자연히 차밭을 떠나고 차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억불정책으로 차 생산 감소 음다 풍습 줄어
지식인들 차 쇠퇴 한탄, 무역 방안 제시도

깊은 산속 절에서는 승려들이 직접 농사 지어 차를 수행으로 삼고 마시며 이용하게 된다. 또한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이 통제되면서 집안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이 점차적으로 즐어들게 된다. 따라서 민간에서도 차가 마실거리로 확대되지 못하고 약용으로 이용되는 단계에 머문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조선의 찻 사발.

하지만 일부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거나 그들의 이상을 표현하는데 차는 여전히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필수조건이었다. "오두막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를 달이고 나물 먹으니, 근심 걱정 떨치고 속정 잊어버리기에 족하구나." 이것은 매월당 김시습의 시다. 15세기 인물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유랑생활을 하며 초야에 묻힌 생육신(生六臣)이다. 산실(山室)을 짓고 차를 직접 채취하여 만들어 마시며 한 잔의 차로 세상의 번잡함을 씻고 속세에 구애 받지 않으려는 자유분방한 그의 이상세계를 수십 편의 다시(茶詩)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왕실의 제례나 사신을 맞이할 때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차가 쓰인다. 공차(貢茶)제도와 다방(茶房)과 다시(茶時)도 여전히 남아 있어 조정에서는 차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에게도 차세(茶稅)를 거두었다. 이처럼 차세만을 거두었지 농민들에게 다원(茶園)을 조성하고 수입을 위한 차를 육성하는 정책은 펼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차는 중국차에 의존해 우리의 토산차 개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의 차 문화가 침체기를 맞이할 시기 중국이나 일본은 차 문화가 가장 번성한다. 일본의 경우 다도(茶道) 형식을 만들어 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수출을 하기도 한다. 중국 역시 공차의 폐단을 없애고 백성의 고달픔을 없애기 위하여 단차(團茶) 금지령을 발표하여 지금 우리들이 마시는 새로운 잎차의 시대를 열게 된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다원(茶園)을 조성해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차를 수출하여 국력을 키우게 된다.

18세기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부 지식인들은 차가 이용되지 않고 산간 지방에 방치되는 실정을 개탄하고, 차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남 진도에 유배했던 이덕리(李德履, 1728~?)는 <기다(記茶)>를 통해 당시 우리 백성들이 차를 몰라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차는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민생에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차를 만들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를 바랐다.

이처럼 서서히 조선의 차도 18세기 실학파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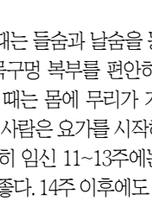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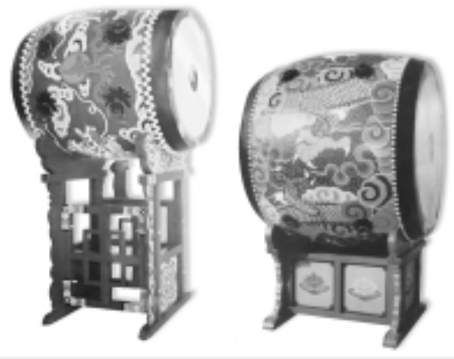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의처 : 010-9244-3358
총무원 055)649-5959


적상산 사고.

숲길은 '포행로' 이며 동물들의 '오솔길'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1) 적상산 안국사

적상호 만들며 18만평 삼림 훼손
중층구조 천불전, 사료적 가치 높아
적상산 숲 층위구조 튼실 종도 다양

해발 1614미터인 덕유산은 백두대간이 지리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기지개를 켠 곳이다. 적상산(1034미터)은 덕유산의 정상인 향적봉 줄기가 북서쪽으로 치올라간 아우산이다. 덕유산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무주' 편에 보면 '사면으로 곧추 선 암벽이 층층이 험하게 깎이어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아' 그 이름을 적상산(赤裳山)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찍이 신라와 백제의 변경이었던 지역으로, 고려 때 최영 장군이 이 천혜의 요새에 축성할 것을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월인(月印) 스님이 성 안에 안국사(安國寺)를 창건해 국태민안을 기원한 것도 그 무렵일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성을 오늘의 모습으로 보축하고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안국사는 국사(國史)를 지키는 나라의 원찰이 되었다.

적상산은 여인네들의 치맛단처럼 사방이 구비진 천애의 층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무주읍을 지나 북창으로 올라가는 길과 그 반대쪽 치목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북창에서 안국사 가는 길은 포장은 되어 있지만, 협곡을 낀 가파른 구절양장(九折羊腸) 구빗길에다 터널까지 통과해야 하는 험로이다.

적상산의 8부에 자리한 산정호수는 지난 1995년 양수(揚水) 발전을 위해 만든 인공호수 적상호이다. 원래 이곳에 있던 안국사와 사고는 수몰 전에 위쪽으로 옮겼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18만평의 삼림이 사라지고, 고산 분지와 습지의 독특한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렸다. 게다가 식생의 고유성이 지켜져야 하는 국립공원임을 망각한 채 족제비싸리, 중국단풍, 일본 홍단풍 등 외래종 조경수들만 그득 심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고는 왕조실록과 옹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서고이다.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병화(兵禍)를 피한 전주본을 재인(再印)하여 광해군 때 정족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에 사고를 지어 봉안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고를 수호하는 역할을 사찰에서 맡게 되었는데, 이곳 안국사를 비롯하여 전등사, 각화사, 보현사, 영감사 등이 그곳이다.

적상호를 굽어보는 둔덕에 선사양각(璿史兩閣)의 사고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고의 언덕에서 굽어보는 적상호가 평화롭다. 옛 문헌에 '성 안은 평탄하고 넓어 물이 사방에서 솟아난다. 참으로 천연의 요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표현은 유효하다.

안국사 모니터링 구간은 사고를 거쳐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 안국사 경내지역, 안렴대와 주변 능선 등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고에서 송대로 내려가는 초입에 고색이 창연한 부도 몇 개가 몇 그루의 독일가문비나무 그늘에 편히 쉬고 있다.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 독일가문비나무(Picea abies)는 나무의 모양새가 우리 전나무와 흡사하다. 그러나 부도와 사고(史庫)가 있는 사적지에 외래종 나무는 아무래도 격이 맞지 않는다.

바야흐로 버섯의 계절이다. 송대로 내려가다 보면 큰눈물버섯 등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큰눈물버섯은 표면은 황갈색이며, 섬유상 인편(鱗片)으로 덮여 있고, 가장자리는 내피막의 흔적인 섬유상의 털이 붙어 있다. 독은 없으나, 식용하지 않는다.

경내에는 '노무라단풍(野村)'이라고도 불리는 홍단풍, 사스타데이지, 컴프리, 자산홍, 일본목련 등 외래종 초본과 목본들이 개체수로 더 많다. 절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분별없이 심은 것들이다.

안국사는 해발 1000미터의 정상부에 있지만, 물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우물을 방불케 하는 큰 샘이 사시사철 줄어들지 않고 흐른다. 산 아래 주민과 관광객이 음용수로 떠가는데 물속에는 동전들이 수두룩 가라앉아 있어서 음용하기에는 좀 꺼림칙하다. 경내 약수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면 공동우물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해우소는 중층 구조로 전통해우소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래층 변조칸을 시멘트로 막아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파리도 엄청 많다.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해우소 앞을 지나면 능선과 안렴대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수행자들에게는 그늘 좋은 '포행로'가, 해가 지면 오소리를 비롯한 적상산의 포유류들이 지나다니는 그들만의 오솔길이 된다.

포유류는 대개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쉽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여 털, 배설물, 소리, 발자국 조사를 병행한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조사도 유용하다. 청문에 의하면, 삵,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등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적상산의 명소인 안렴대(按廉臺)는 바위의 절리현상으로 이루어진 절벽이다. 조선조 안렴사(按廉使)들이 난을 평정하기 위해 올랐다는 전설과 짝하여 멀리로는 덕유산 줄기들이 장쾌하게 지나가고, 발아래로는 남도로 가는 길이 달리고 있다.

안국사와 안렴대를 포함한 정상부는 늙은 노송도 간간이 보이지만, 주목을 끌지 못하고 거의가 활엽수들이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글자 그대로 붉은 치마폭[赤裳]을 펼친 듯 할 것이다.

부도-송대-사고-안국사-안렴대-향로봉 주변의 초본으로는 여로, 뻐꾹나리, 조릿대, 김의털, 우산나물, 하늘말나리, 오리방풀, 애기나리, 까치수영, 박쥐나물, 모시대, 산오이풀, 동자꽃, 물봉선화, 정령엉겅퀴, 흰송이풀, 진범, 까치수영, 노루오줌 등등이 있다. 안국사 안팎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으로는 뱀무, 광대수염, 돌나물, 기린초, 갈퀴나물, 큰방가지똥, 그리고 엉겅퀴 종류 등이 있었다.

적상산 숲은 층위구조가 튼실하고 종도 비교적 다양했다.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들메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건조한 곳에는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습한 곳에는 들메나무, 고로쇠나무, 까치박달 등이 많이 보인다.

호국사비 주변은 수각의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라 주변이 음습하다. 버드나무류를 비롯하여 딱총나무 등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저네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안국사 딱새 암컷.


까치박달.


뱀무.


별박이 세줄나비.


큰눈물버섯.

백련잎에 청개구리
http://cafe.daum.net/joungsimboduk

백련의 향기 속으로...
중생들의 사사로운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의 정서를 넘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품어 안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주옥같은 시편들이 읽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 주는 듯 하다.
– 충청매일

꾸밈이 없어 담백하고 순박한 시편 하나하나의 행간엔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자비심이 흠뻑 깃들어 있다.
–법보신문

시편을 읽다보면 눈에 띄는 것은 소재의 무궁무진함이다. 먼지 같은 인연 하나도 모두 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를 읽다보면 전생과 인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게 된다.
–동양일보

지리산자락이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내 마음에 존재한 부처를 발견하는 만행의 기쁨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새충청일보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Tel 055)962-3931/Fax 055)962-3920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붓다북(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절찬판매중

천년와불의 성지 지리산 견불사
지리산 깊은 골짜기, 천년을 이어온 와불의 정기...
그 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난 수행의 향기가
이 한권에 담겨 있다.

불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도량을 세우리라 '는 사명감으로 사부대중이 손수 돌을 골라내고 축대를 쌓아 올려 일구어낸 10년 대작 불사의 정진 속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옮겨 적은 것이 그대로 시가 되어서 일까. 어떤 시적인 정형성보다는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묘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며, 정겹고 풋풋한 언어의 조합은 수행이라는 연마를 거쳐 마무리된 잘 다듬어진 주물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무조건 자기 콩싹은 자기 콩씨를 믿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일어납시다. 이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몸속에 지금 악업이고 선업이고, 팔자 운명이고 인과고 또는 유전성이고, 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거일동, 너의 껍데기가 생겼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몸뚱이에 결부가 된 거다, 그러니 그거를 믿지 말고 어떠한 거든지 나오는 대로,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 넣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 뭐 영계성 · 업보성 · 유전성 · 인과성 · 세균성 이게 다 입력이 됐었는데 그거 차례차례로 자꾸자꾸 솔솔 나오는데 그게 다 녹는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에서도 그냥 벌집 일어나듯 하고 바깥에서도 닥쳐오고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인생살이가 힘들겠어요? 몸만 망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네가 일거수일투족 생활하는 그 자체, 어떤 업보가 닥치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든지 하여간에 모든 거는 고놈이 하는 거다, 그 자동 녹음기가 하는 거다, 자동 컴퓨터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라는 이름은 숙명통(宿命通)에 해당한다. 이 지금 천안(天眼) · 천이(天耳) 또는 신족(神足) · 타심(他心) · 숙명 이 다섯 가지가 합해서 자동적인 컴퓨터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다섯 가지로 인해서 벌여놓는 거고 생활하는 거고, 다섯 가지로 인해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시는 데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니까 어저께 입력된 것이 오늘 아는 것에 바로 그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거기다가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 놔야 하느냐 하면 공(空)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공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불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세계가 돼서, 한 혹성이 돼서 살고 있으니까요. 따로 내가 했다, 내가 뭐 당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야, 한마음 속에서 한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덩어리 속에서 한마음으로 처리해.' 그러고는 거기다가 되놓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항상 얘기하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일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이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물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었습니까, 어디? 이 속에서 모두 "야! 목 타, 물 좀 줘!" 하니까 이걸 주는 심부름꾼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꾼이자 관리인, 그리고 집합소예요. 그러니 아예 네가 했다, 네가 했다 하다가 또 네가 너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게 공했느니라. 그러니 색(色)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러니 그대로 허공에 꽃이 피어서 만발했으니 그 도리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란 얘기죠. 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니, 그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이 다 응신(應身)으로서 화(化)해서 여러분께 베풀어라 이겁니다. 어때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경전이다 하더라도 그 경전에다가 다 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라. 돌아가는 이 세상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化)해서, 찰나찰나 변질이 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니라." 그러니 이 도리를 먼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박아놓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바로 경을 한 번 보면 그게 납득이 되고 "아하!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탄복을 하지만,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않고 그 도리를 모르는 채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겉핥기죠.

그냥 이론으로 이름만 그냥 졸졸졸졸 외우고선 금강경을 읽었다, 무슨 화엄경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능엄경을 읽었다 온통 읽었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러나 읽었다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자기의 에너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죠. 그 말은 이론이기 때문에 한데 떨어지고 말아버리니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부터 보지 말라. 마음의 도리부터 공부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흔들어지지 않을 때에 경전을 한번 봐라. 그러면 경전이 너를 보지 않을 거고 네가 경전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나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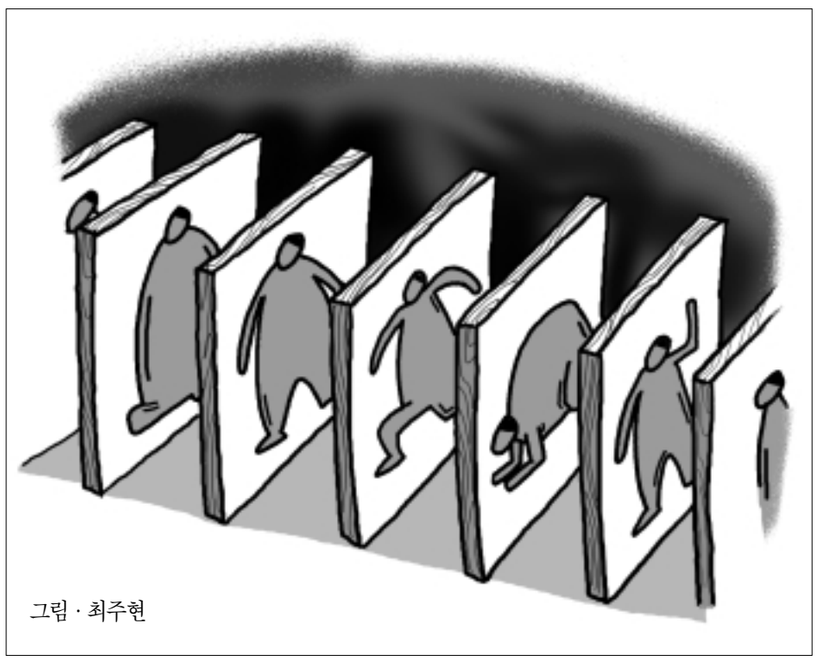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공부하시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인도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불교 교재가 나와서 대학에서 철학이니 뭐니 다 배우게끔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죠. 모두 우리 한국은 불교라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들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 질문하실 분 없어요?

▲사회자: 예, 몇 분 있습니다.

▲스님: 네,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스님의 회향하는 법과 하심하는 법을 크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문외한임을 통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의 법을 받들어 처음에는 뭔가 확 트이는 것 같고 뭔가 넓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점차 가다보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저것이 저것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데 스님께서 등불 하나 밝혀주셨는데, 그 빛만 볼 줄 알았지 그 밖에 광대한 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들은 세계를 보란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전 대천세계가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의식과 천차만별의 생각이 들어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제가끔 일어나는 거를 자기라고들 모두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깐 멋대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들이 생겨난 것인데, 그 업식들이 해코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잘 생각이 나오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우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구에 붙어서 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라고요. 그럴 때 그것이 모두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이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내가 잘못됐든 잘됐든 거기다 다 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너 자신 혼자 그냥 이 껍데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껍데기 속에서 한 거니까 껍데기 속에다가 다 맡겨 놓으라는 거죠. 껍데기 속에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벌써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또 통신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거는 내가 살 길이 터지는 겁니다. 또 살 길이 막히는 것도 이 한생각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한생각을 잘하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누가 다스리고 나갑니까! 자기 주인공 선장입니다. 그 선장은 영원한 자기의 선장이며 불기둥입니다. 그 불기둥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레에 모두 실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기 콩싹이 자기 콩씨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 콩이 과거 일로 돌아가서 뿌리에 달린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싹이 있는 데에 붙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콩씨입니다. 콩씨가 그 뿌리로 화(化)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한 콩씨와 화하지 않은 콩씨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게끔 통하면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자와 부가 하나로 돼가지고 부가 돼서 부처가 되고, 또 무슨 일할 게 있어서 생각을 했다 하면 부가 자로 하나가 돼서 법신(法身)이 되고, 또 움죽거리고 모두 이렇게 간다, 움죽거릴 게 있다 행동할 게 있다 이런다면 법신이 그 자인 육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화신(化身)이 된다. 화신이 된다는 건 화한다 이거죠. 화해서 또 남을 위한다 할 때는 응신(應身)이 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묘법인데 우리가 그걸 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찾지 않고 그냥 더퍽더퍽 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다면, 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종자는 종자로 또 나와서 그 종자로 또 살 겁니다. 깨씨가 팥씨 될 리 없고 팥씨가 깨씨 될 리 없고, 씨 종자대로 이 세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란 씨 종자가 따로 없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즉, 불씨가 된다 이겁니다. 불종자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제?

▲질문자1(남): 믿음의 변함없는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질문자2(여): 이렇게 스님을 대하고 보니 참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미련한 중생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자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장남이 이 절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서른셋입니다.

▲스님: 서른셋이요?

▲질문자2(여): 네, 장남이요. 그런데 어쩐지 저리 혼사일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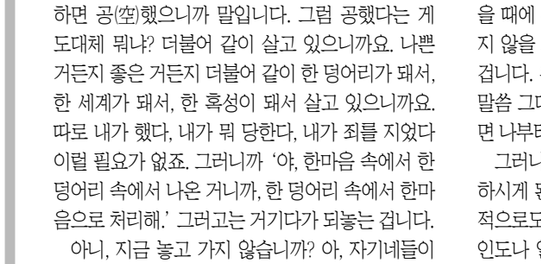
▲스님: 아, 그거는 본인이 맞는 사람이 없기에 마

☞22면으로 계속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임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건봉사에서 바쁜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1차 : 2007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2차 : 2007년 8월 10일 ~ 12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참가비 : 70,000원
▶ 준비물 : 필기구,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 입금계좌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입금 후 전화연락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덧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놓으세요!

☞21면에서 계속

음을 내지 않겠죠.

▲질문자2(여): 아무리 제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이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참….

▲사회자: 결혼시켜달라는 말이죠?

▲스님: 그거는요,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딱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질문자2(여): 그렇게 되겠습니까?

▲스님: 네. (대중 웃음) 그것이, 그것이 법이니깐요.

▲질문자2(여): 네. 하도 부모된 도리로써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 답답해하실 게 없어요. 그냥 탁 놔버리면 그냥 배고프면 먹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자고 싶으면 잘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손들이 제대로 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대중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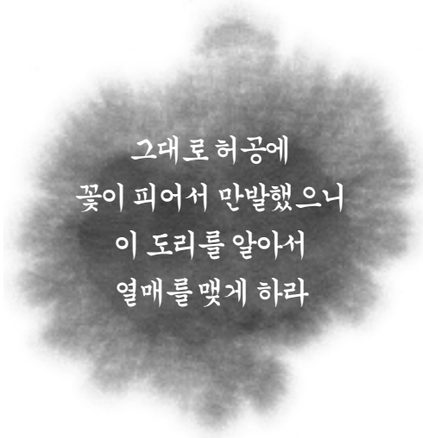
▲질문자3(여):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질문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아들하고 동시에 같이 체험한 걸 말씀 올리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요번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가지고 스님께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공부하고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발을 삐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관법(觀法) 노트를 썼는데요, 스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지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구본철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며 주인공이 제일 고맙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경험담도 체험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중학생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씁니다.

때는 5월 초,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결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거짓말로 나는 "차를 잘 몬다. 내 경력이 일 년이 다 되어 가는데."라고 거짓말을 하였더니 친구들은 정말로 믿고 언제 한번 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5월 초 어느 토요일 날, 진짜로 아이들은 독서실 간다며 핑계를 대고 새벽 한 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천성이 좀 겁이 없기 때문에 엄마 몰래 키를 훔쳐내어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막상 키를 갖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차 안에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들을 부르고 차에 태워서 운전대 한 번 잡지 못한 실력으로 막상 출발을 하였습니다. 차는 오토매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보라서 잘 못하겠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초보보다 더 낮은, 면허증도 없고 운전대에 손도 한 번 안 올려본 내가 그래도 출발하였다니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용기가 붙어 대구를 3시간 동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이러기를, 매주 공휴일 새벽마다 계속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구미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간이 붓지 않은 이상 이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다녔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동화 속의 주인공인 줄 착각할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계속 그러기를 한 달, 때는 6월 5일. 학교에서 제 친구 중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즉시 친구에게 두 차로 구미까지 가자고 제안을 하니, 즉시 좋다고 하며 새벽 2시까지 앞산 주차장으로 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차를 몰래 몰고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을 태우고 주차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하니 과연 프린스 신형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엘란트라고요. 즉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추월하지 말고 따라와라. 길은 내가 아니까."라고 말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신천 대로를 진입하여 약 시속 100km를 밟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신천대로는 말 그대로 큰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도 높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긴 길이었기에 저는 그대로 달렸던 겁니다. 가다 보면 북대구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그리로 가면 다른 데가 나오기 때문에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로 가려다 내 친구가 "니 어디로 가노?"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틀었습니다. 사고가 날 뻔 하였지요.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 100km만 밟아도 차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미 갈 때는 150km를 밟아도 아무 이상 없던 차가 그날따라 이상하였습니다. 미리 주인공이 암시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습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의 차가 쌍라이트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차였습니다. 저는 왜 쌍라이트를 켰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다른 데로 빠지려다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고 쌍라이트를 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문제점이 제 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으로 불을 켰느냐 하면 '너희 차는 소형차고 인구도 많으니까 내 차에 태워라. 따라서 내가 앞질러 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제가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준 것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알았다. 날 앞질러 가라.'라는 뜻으로 들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120km로 가고 있었고 제 친구는 절 따라 잡는다고 140km로 갔습니다. 저는 물론 추월하는지도 몰랐죠. 옆에 번쩍거리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제 차 앞부분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끽 소리가 나는 동시에 중앙분리대를 박고 제 친구 차가 위로 붕 떴습니다. 쿵하고 내려옴과 동시에 차가 뒹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제 차 안에 탄 사람은 모두 안전벨트를 해서 밖으로 나가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뒹굴었을 때 찌그러져서 안전벨트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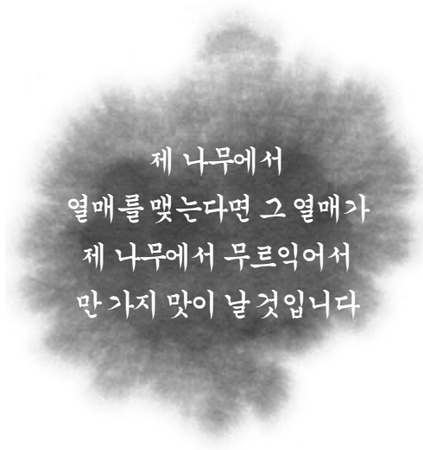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 주인공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차가 제 친구 차를 밀고 나갈 당시에, 찰나에 수억만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주인공!'이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막상 세우고 나서 생각나는 게 친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차는 뒤집어져 있고 반은 부서져 있었으니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진 차에서 뒷창문을 깨고 절룩거리며 3명이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리는 피하자고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기 있는 데까지 뛰어가는데 계속 스님 부르고 주인공을 부르며 갔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백번도 더 관(觀)하며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현장으로 오시라고 연락을 해놓고 우리끼리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절망적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일을 보시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내 일처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다 주인공의 나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은 좋게 일단락지었습니다. 사고 난 이튿날 주인공에게 '주인공, 감사해! 스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을 더욱 더 믿고 관(觀)하게 되었으며 차만 보면 소름끼치는 것도 생겼습니다. 해결사 주인공, 해결사 주인공을 믿는 만큼 더 크게 해결해주시는 주인공 더욱더 믿고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철 올림. (대중 박수)

그런데 스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사건이 나고 해결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물 흐르듯이 해결이 되고 아침에 지원 스님께 전화드리고 나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생각이 났거든요.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회에서 스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도리를 물려주는 것이 세세생생 건지는 것'이라고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부모로서 저 자식한테 어떤 걸 해줄까 마음이 막 올라왔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저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예금한 거하고 또 보험에서 축하금으로 나온 거하고 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한 것이 있었는데, 보이는 통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에다가 아들 앞으로 저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스님께 그 보시금을 올리려고 가져가면서 주인공한테 관하기를 '주인공, 이 돈을 올리는 자리도 받는 자리도 한마음 주인공이고 나는 철저하게 심부름만 할 뿐이다.'라고 관하고는 스님 방에 들어가서는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삽니다. 지금 당장 이후에 뭐가 풀려나올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 돈은 본철이 돈이니까 본철이 앞으로 올리니 스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한생각이 나면서 제 주인 자리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오직 주인공만 믿는 이 마음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보이지 않는 부처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 이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스님 이후에도 계시겠지만, 살아 있는 부처님께 인연 되어 이 도리 공부하고 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님: (합장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그런데 누구나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연히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고 꼭 내가 한 거만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저분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죠. 양 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묻기를 "이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들의 옷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주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 시주입니다. 헛 시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나는 있는 통장보다도 없는 통장을 위해서, 난 그 애한테 없는 통장에 예금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여기다가 놔도 또 지원의 스님한테다 줘도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 자기 거를 자기가 한 거지, 자기네 그 아들한테로 무심통장을 한 거지 그건 개별적인 우리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네들에게 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라고 줬어도 그건 앞으로 자기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중들의 불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더러 네가 이 시주를 하고, 네가 시주한 거는 대가를 바라고 또 시주를 내가 했다고 만백성들한테 풍기고 그러고 했으니 무슨 시주가 공덕이 될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시주를 해도 누가 요만한 거 하나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마음선원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네들 자기 밥들 먹고 사는 스님네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선 왜 자기 밥들이라고 하느냐, 그런다면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가니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니깐 그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휘번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럭합니까? 근중한 내 부모가 내 종자를 줬고 그 종자로 인해서 몸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것도 그 몸을 탄생을 시킨 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갈 걸, 영원히 가지고 못 있을 걸 왜 그거를 짐을 져요? 내가 왜 짐을 집니까? 여러분의 짐을 왜 내가 집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된 겁니까?

▲대중: 네.

▲스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여러 마디 중에 그래도 어딘가가 뭐 한 가지라도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면서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잘살든 못살든 자기 주처만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가 잘나고 부자라고 해서 내 부모를 바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95년 6월 18일

休 휴가철에 권하는 화제의 신간

삶의 쉼표, 명상 책도시락을 선물하세요.



고마워요 자비명상

마가 스님 · 이주영 지음 | 신국판 | 값 12,000원

자비명상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시킨다. 자비명상은 고통받는 마음을 치료하는 자기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마음의 괴로움과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1부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하여, 2부 프로그램의 토대, 3부 진행자를 위한 안내, 부록 등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놓아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이 책은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 직장에서 타인과의 관계 등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방법들이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힘,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자비로워진다.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불광출판사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강연 일정

마가 스님은 『고마워요 자비명상』 출간을 계기로 전국 순회 강연을 갖는다. 청중의 특성에 따라 부부자비명상, 자녀교육을 위한 자비명상, 직장인을 위한 자비명상, 교사를 위한 자비명상 등 맞춤별 자비명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년간의 수행 지도와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강사로 뽑힌 스님의 명쾌한 강연을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응어리가 풀리고 가슴이 환히 열릴 것이다. 또한 자기 안에 깊숙이 내재된 긍정성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기르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는 스님의 강연은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 오기에 충분하다.

- 광주 원각사 (7. 16 오전 11시, 062-224-5289)
- 대전 백제불교대학 (7. 17 저녁 7시, 042-471-5547)
- 대전 보현불교대학 (7. 24 저녁 7시 042-624-6555)
- 울산 월봉사 (7. 28 오전 10시, 052-251-4602)
- 부산 홍법사 (7. 28 저녁 7시, 051-508-0345)
- 용인 행복선원 (8. 8 오후 2시 031-286-3663)
- 울주 관자재병원 (8. 11 낮 12시)
- 인천 부루나포교원 (8. 12 오전 11시, 032-577-5108)
- 춘천 봉덕사 (8. 13 저녁 7시, 033-244-6448)
- 대구 관음사 한국(영남) 불교대학 (8. 18 오전 10시, 053-474-8228)
- 전주 전북불교대학 (8. 19 오전 10시, 063-226-7878)
- 서울 불광사 (8. 26 오전 10시 30분, 02-413-6060)
- 구미 도리사 (9. 1~2, 14~16, 054-474-3737)
- 아산 룸비니유치원 (9. 5 저녁 6시 30분 041-545-9581)
- 천안 부루나유치원 (9. 19저녁 7시 041-578-0360)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마음을 밝히는 명상 책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전4권)
4 · 6판 | 4권 1질 | 값 20,000원

5박 6일 명상 체험기
● 김남선 지음
신국판 | 312면 | 값 8,500원

마음공부 이야기
● 법상 지음
4 · 6판 | 278면 | 값 6,000원

청소년을 위한 명상 이야기
● 최시선 지음
신국판 | 440면 | 값 9,500원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 혜봉 지음
신국판 | 359면 | 값 9,000원

위빠싸나1,2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
● 김열권 지음
신국판 | 1권 352면 · 2권 544면 | 각권 값 12,000 · 15,000원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즐거운 노년 표 글루미족'을 위해

"삼겹살 구워 혼자 먹어도 맛있네."라는 신문 제목을 읽은 적이 있다.

우울과 고독을 즐기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된 현대 도시인들. 이른바 글루미(gloomy)족(族)을 위해 '나 홀로'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식당이야기에서 이 제목이 나왔다.

삼겹살 굽는 철판을 바(bar)식으로 만들어 손님 건너편에서 종업원이 삼겹살을 구워 서비스하는 식당으로 특히 '나 홀로' 손님을 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울적한 장마철에도 그 울적함을 즐기는 글루미족이 '삼겹살 구워 혼자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아니 적어도 글루미족이라면 식당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 먹어도 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날마다 복잡함을 더해가는 도시생활에서 어쩌면 고독이나 우울함은 일종의 도피처일수도 있다. 그러니 글루미족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글루미족 뿐인가. 은둔형 외톨이를 선호하는 코쿤 족은 누에고치 안에 칩거한다는 뜻일 것이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 불리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말로 쉽게 하자면 '나 홀로 방콕 형'이다. 모두가 현대적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생활 유형들이다.

핵가족에서 좀더 분화한 독신세대가 늘고 있는 현대를 두고 '혼자 식사하는 시대'란 말도 한다.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물론 혼자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사람도 이제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독신세대의 증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들을 위한 소량의 식품을 포장해 판매하고 판매량 역시 늘고 있다.

현대 도시 젊은이들은 이렇듯 '혼자' '외로움' 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선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이나 울적함이 스스로 선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몰린 경우라면 그것은 즐길만한 것이 못된다.

대부분의 노인세대는 고독이나 울적함을 선호한 적이 없다. 그들이 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면 '혼자 먹어도 맛있다'가 아니라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먹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은퇴자들은 '은퇴해 보니 은퇴자금이나 여생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고 다르더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한국사회도 곧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스스로 선호한 고독과 울적함이 아닌, 그렇게 내 몰린 고독과 울적함의 세대가 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스티브 폴랜이라는 사람이 쓴 <다 쓰고 죽자>는 한동안 미국 노년들을 사로잡았던 책. 여기서 폴랜은 '은퇴 후 영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라' 고 충고한다.

그 휴가 때문에 건강은 나빠지고 정신도 녹슨다는 것이다. '모아둔 재산이 있다면 자식에게 물려 줄 생각 말고 여생을 최대한 즐겨라'고도 했다.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다툴 일도, 가산 탕진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폴랜의 충고는 적어도 여유 있는 은퇴자금을 필요로 한다. 한국 대부분의 외로운 노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대신 인도 고대로부터 전해 온 인생 사계(四計) 가운데 노년의 계획인 '수행을 위해 혼자 숲으로 간다'의 노계(老計)를 권하고 싶다. 이런 노계를 세우면 선호하지 않은 고독이라 해도 글루미는 결코 울적함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즐거운 노년 표 글루미족'이 탄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종교계, 특히 불교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불자의 눈

'예스 평창' 불교계에 남긴 것

'예스 평창'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전은 아름다웠다. 7월 5일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러시아 소치로 결정되는 순간 불자와 국민들은 허탈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절망하진 않았다. 그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 도전을 통해 강원도는 세계에 알려졌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는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열정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불교계도 이루지 못한 원력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함께 손잡고 기원했던 아름다운 동참의 공덕을 갈무리 할 때다. 불교계는 서울 조계사에서 대형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기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 준 바 있다. 무엇보다 강원도에 위치한 조계종 교구본사 신흥사와 월정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유감없이 결집했고 드러냈다. 두 본사의 주지 스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두 교구본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지역민과 함께 각종 기원 법회와 행사를 전개하는 동안 불교는 지역민들에게로 바짝 다가갔고 그들은 불교의 향훈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의 염원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불교는 산중의 종교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 존재하는 가르침임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큰 포교를 한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교계가 흘린 땀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라는 강한 이미지로 남았다. 이 경험을 토대로 거시적인 포교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뿌리고 수확은 못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공원 내 사찰의 '공적가치'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내 사찰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의 위헌성도 따지기로 했다.

조계종과 정부가 상당한 긴장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올 연초부터 공원입장료 징수가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와 관련한 문제를 푸는데 종단과 정부의 손발이 어긋난 결과다. 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6개월간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조계종, 환경단체가 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갈등으로 번졌다.

조계종이 강경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인데, 사찰 소유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종교라는 신성한 범위를 침해한 관계법과 그간의 관례들을 근본적으로 고쳐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사찰 소유의 토지는 8%에 가깝다. 이 수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원 내 탐방객이 즐겨 찾는 곳 내지는 주요 탐방로가 대부분 사찰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풍치지구 뿐 아니라 국보 17점과 보물 61점을 포함한 주요 문화재도 대부분 사찰 경내에 소재한다.

문화재관람료 관련 문제에 있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찰의 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조계종이 강경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재산권 주장'이 아니라 바로 공적가치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바로 이 수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9. 대학채플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타종교 학생들에겐 '고문'…강제성 재고해야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신이야말로 대학의 근본 바탕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종교에 관한 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공간인 것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제도적으로 타종교인을 배제하는 대표적이 예는 채플과 종교과목의 강제, 특정종교인만의 교직원 임용 등이다.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라면 모를까, 일반종합대학에서 어떻게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수월성보다 특정종교의 선교가 더 중요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채플은 기도, 찬송 등 기독교 예배의식으로 졸업 때까지 대개 4학기에서 8학기까지 1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단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종교 학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갈등을 호소할 만도 하다. 대학채플과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가?

첫째,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이기에 '예배나 선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종교사학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 누가 허용했는가?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허가해 주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예배와 선교까지 허가했단 말인가? 국가가 교육형성권의 일부를 사학재단에 위임한다고 해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종교사학의 강제예배 관행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너무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한 결과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진 것일 뿐이다.

둘째, 이미 알고 들어왔으면서 웬 딴소리냐는 논리다. 이것 역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약자인 학생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은 대학으로부터 채플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공지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여유도 없다. 타종교 학생들에게 생소할 채플의 성격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는 것은, 아마도 입시요강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순간 바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러나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종교사학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입학 시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서약'이나 '선서'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것도 채플 합리화를 위한 사전 요식행위이다.

셋째,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면서 종교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강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중국 동북부지역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 이 십자가는 서울 p교회 사람들이 초등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러 왔다가 무차별적으로 걸어준 것이라고 한다.

자인 종교사학들이 "싫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국민의 성원과 국가의 각종 혜택 속에서 성장한 사학재단의 배은망덕이며 무책임한 말이다. 대학입시는 전국민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대학교육의 사립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특정종교 대학들을 제외하고 선택하라면 타종교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은 차별적으로 심히 제한된다. 국가가 종교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사학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외면한 채, 학생의 입학 · 재학 관계를 학생과 학교 간 당사자만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른 단순한 사법(私法) 상의 계약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학 책의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국가가 제3자의 입장으로 피해가서는 안 되며 정책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넷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종의 자유'이다. 입학 시 받아들였다고 해서 졸업 때까지 종교적 신념이 바뀌지 말란 법은 없으며, 개종 후에도 대학이 특정종교 의식을 계속 강제한다면 종교폭력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종의 자유가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일 것이다. 종교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사회의 기독교 대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적어도 강제 예배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도 체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겐 좋은 약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에겐 특정종교 의식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겐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계 대학들이 먼저 자각하여 강제채플을 개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거대한 사학재단의 횡포에 약자인 학생이나 교수가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또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할 국가나 지도자들은 학생의 인권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만 하다.

대학사회에서의 야만적인 종교강요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세심한 논의와 정부의 진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 입장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 -

1.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개방하여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2. 문화재관람료 시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들에게 개방,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다.

- 등산객들은 '나는 산에 가는 것이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 산이 사찰소유 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유지로 생각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전국의 국립공원 구역내에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국립공원 곳곳에 부착함으로써 공원구역의 산이 마치 국유지이며, 이를 국가가 무료로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 현재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는 국립공원 구역 내의 문화재사찰에 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공원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인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은 불법무효이다.

- 공공적 목적으로 사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소유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할 경우 국가가 해당 부지를 수용하거나 손실보상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지정, 설치, 운영함은 불법무효이다.

4. 만일 사찰의 동의하에 전통사찰 경내지 내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 설치, 운영할 경우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사찰의 동의 없이 경내지 토지에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 설치,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6.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공단"이란 용어는 국립공원부지 내의 전통사찰 경내지 및 건조물 등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비치고 있으며, 사실상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용어"이자 "위헌적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명칭을 수정하라.

- 사찰은 경내지 토지나 건조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결코 관리공단에 부여한 적이 없다.
- 국가가 사찰의 토지 및 건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려 한다면 손실보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7.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국가법에 의거한 적법한 제도이며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 적절한 인원 통제 기능을 통해 쾌적한 탐방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 문화재보수유지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도움이 된다.
- 문화재사찰 유지 및 관리운영에 도움이 된다.
- 탐방객에 대한 안내서비스(안내 팜플렛 등)에 필요하다.
- 문화재소유권에 근거한 정당한 법적 권리이다.

8. 사찰은 경내지(사찰림) 및 건조물로부터 유래하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① 수행, 전법, 교화 등의 각종 종교 활동권
② 문화재 등 문화유산 및 문화 환경에 대한 보존관리권
③ 생태계, 풍치, 경관 등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관리권. 그런데 공원지정과 공원시설(탐방로 등)을 지정, 설치함으로서 사찰의 의도와 관리를 벗어난 무제한적인 등산객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으며, 마침내는 소유권 자체가 부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① 국립공원에서 전통사찰의 토지를 제외시켜라.
② 사찰 토지를 제외 조치할 때까지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 운영하는 각종 공원시설들(등산탐방로 등) 에 대해 즉각 지정을 취소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복구 하라.
③ 사찰의 동의하에 운영되는 공원시설(등산탐방로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④ 국립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자연보존정책을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자연훼손을 가속화하는 무분별한 등산객 유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⑤ 사찰은 사찰의 경내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된 경우, 자연보존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지만, 사찰의 동의 없이 사찰본연의 입장(종교활동,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사업, 자연보전 사업)과 배치되는 무분별한 등산객 유치 등 이용중심의 사업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⑥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등산로관리공단' 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을 직시하고, 2007년 초부터 시행되는 공원입장료폐지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산객 유치사업' 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전국의 국립공원 산은 작년에 비해 30% - 200%까지 등산객들이 급증하여 자연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명산들이 정상부와 능선의 훼손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⑦ 현재 국가에서는 산림을 이용하여 휴양, 레저 및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산림청이 '등산로관리청' 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일 국립공원정책이 등산객 유치 등 이용중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자연공원법' 을 폐지해도 무방할 것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없더라도 산림청에서 위의 법에 따라 등산로 관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의향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 취지에 따라 자연보전정책을 우선적이고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① 불교계와 사찰이 보유한 각종 문화재와 소유 토지는 국가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에 의해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법당이나 선원 등을 필요에 따라 증 · 개축하거나 신도들의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어 종교적 포교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유 토지 등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당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따른 규제나 제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산, 재정상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를 검토하여 적절한 시행을 해주길 바란다.
② 최근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제도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악하려는 의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문화재관람료징수는 법에 의거한 고유한 권한이며 그 액수도 국내외의 각종 관람료와 비교한다면 경미한 수준이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절 비로소 적법하게 회복한 제도를 과거의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③ 문화재관람료를 정부(중앙 또는 지방)가 보전해주고 대신 사찰과 소유 토지(사찰림 등)를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의도 또한 단연코 반대한다.
사찰은 민법상의 소유권과 문화재보호법상의 법적권리에 의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서 당당히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것이다.
경미한 문화재관람료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찰의 소유문화재와 소유 토지 전체의 권한을 양도받아 일반인들에게 완전 개방시키겠다는 의도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만일 그렇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이 아닌 소유토지와 문화재의 가치금액 전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사찰의 경내지(토지 및 사찰림 등)와 불교문화재는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와중에서 사찰과 승려의 노력으로 수호해온 불교의 재산입니다.

전 국토가 전쟁과 땔감 채취 등으로 민둥산이 되었을 때 유독 사찰림 만이 울창하고 수려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낫과 톱 앞에 맞서서 산림을 지켜왔던 승려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많은 불교문화재는 해방 이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울창하고 수려한 많은 사찰림 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의 건조물 등은 원형보존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법에 의해 증 ·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제약되었으며, 사찰 토지는 개발이나 양도 등 어떠한 생산활동도 못하도록 규제되었으며 국립공원 등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치고 100명 이상의 인원을 쾌적하게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이 거의 없으며 이는 수천명이 동시에 예배볼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웃종교와 비교할 때 그 심각한 차별과 규제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교는 포교와 대사회활동에 있어 심각하게 위축되고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도 불교는 힘겹게 전법교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편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소유권이나 문화재보호법상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액수의 경미함과 사찰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사찰소유 토지야 말로 승려와 사찰에 의해 구현된 한국특유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 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란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자산, 자연자원을 확보하여 영구보존 관리하는 운동임.)

국내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성과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찍이 승려와 사찰에 의해 이러한 취지가 현실적으로 구현되었으며 그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크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찰의 토지와 건조물, 문화재 등은 어느 승려 개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공공적(사찰과 종단명의)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지를 포함한 어느 승려 개인이나 단체가 양도처분할 수 없도록 불교종단법에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개발행위제한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서도 이중삼중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실로 사찰소유 토지는 그 소중한 가치로 인해 그 소유권이 공공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제약이 많더라도 문화재보호나 자연보전 등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소유권의 침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해 공공연히 체육, 레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객의 이용에 무제한 제공됨으로써 종교활동,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보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찰과 불교계는 비록 소유토지와 재산을 공공적 목적으로 제약당하고 그 권한이 침해받고 있지만 그 어느 개인과 단체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적 임무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과 불교계는 현재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잘 보존관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중한 유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잘 보전되어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큰 책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찰과 불교계의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51(2007)년 7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